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68 1981년11월1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November 12, 1981

NOV 16 1981
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남북한 직항노선 놓고 외교전

북경—동경항로 서울 또는 평양통과

한국과일본 두 정부는남북한상공을 각각 지나는두개의 동경, 북경간 직접항로를 개설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측의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11일 노신영 외무장관이 말했다.

노장관은 이날 국회외무위에서 현재 한국정부가몬트리얼에 본부를 둔 ICAO및 관계당사자들과 남,한상공을 지나는 동경·북경간 항로개설에 관해 긴밀한 접촉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정부는 지난4일 중앙통신을 통해 원산및 평양상공을 지나는 동경, 북경노선 개설에 북한과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합의했다고 발표한바있다.

이에대해 노장관은 민간항공기구의 역할이 관계당사국간의 중재역을 담당하는데 있는만큼 일본및 중공정부와의 사전 합의가따르지 않는한 근거가 희박한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동경, 북경간 노선은 직접항로가 아닌 제주도 남단을 지나는 우회노선을 지나고 있는데, 두도시간 직선항로를 운항할경우 현 노선보다 약80분 정도 비행시간이 단축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80년3월 동경, 북경간 직선항로 개설문제 논의를 위해 한국, 일본, 중공, 북한 4개 당사국에 제의 했었는데 북한측은 만일 남,북한 상공을 각각 지나는 두개의 노선을 양립시킬 경우 남북한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 이를 거부했었다.

80년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서울상공및 중공 상공을 지나는 두개의 항로개설을 제의해 왔다고 노장관은 밝혔다.

북한은 소련과 중공항공기들이 평양을 정기운항하고있고, 다른 국가들과 쌍무항공협정을 맺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어떤 국가의 민간항공기들도 동경, 북경간의 비행을 위해 북한상공을 통과하는것을 금지해 왔었다.

이 직항노선의 개설을두고 남,북한이 외교전을 벌이는 이유는 이 노선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서울또는 평양경유노선을 얻게 됨에 따르는 관광및 산업면의 이점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경이나 동경을 다니는 비지네스맨들은 시간상 거리상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다.

▲6피트9인치의 여자거인—중공여자농구팀에서 가장키가 큰 첸유펭양이 윌리엄 펜실바니아 대학팀선수와 악수하고있다. 〈펜실바니아, 오스카루사—

영국, 에이레 수뇌회담

북에이레 신교도들 반발

복면을 쓴 수백명의 북에이레 신교도들은 7일북에이레의 마을 2곳을 1시간동안 점령, 런던에서 열리고있는 영국과 에이레공화국간의 양국수뇌회담 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

400여명의 무장신교도들은 엔트림 카운티의 코노·와퀠스마을을 점령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자 자진 해산했다.

가렛·핏처랄드 아일랜드수상은 7일 대처영국수상을 만나 북에이레 폭동으로 경직된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한 양국정부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북에이레거주 신교도들은 양국정부의 이와같은 움직임을 구교도중심의 북에이레 통합으로 이끄는전략이라고 항의했다.

무장신교도 지도자 이안·페이슬리 목사는 7일 동위원회의 정책은 혹독하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처영국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북에이레의 헌법상(조직상) 연결이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이같은 연결은 북에이레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만끊어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처수상은 북에이레 주민의 신분을 절대 보장하는 동시에 아이리쉬공화국과 친선관계를 갖는 것이 북에이레와 전체영국민들을 위한 최대 이익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수뇌는 만약 양국국회가 원한다면 동 위원회에 양국국회의원들을 포함 확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선 양국간의경재협력을 촉진, 아이레 게릴라들에 의해 두절된 천연가스와 전기공급을 북에이레에 재개할 계획이다.

핏처랄드 아이리쉬 수상은 이와같은 협력은 평화에의 일보 전진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찰스 하우게이 전 아이리쉬 수상은 7일 이번 협정은 북에이레 평화의일보 후퇴라고 비난했다.

社說

경솔의 어리석음

- 북한행은 재삼 고려해야 -

북한에 다녀온 재미교포(LA거주 홍선길)가 간첩활동중 최근 체포되어 화제에 오르고 있다.(본보11월10일자, 11일자)

과거 조총련계에 포섭된 재일동포의 간첩행위나 유럽거주 한인의 간첩사건등은 간혹 있었으나 남북미주에서는 그같은 사건이이번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의 놀람과 경각심을북돋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전 기획부에 따르면 문제의 인물 홍은 북괴공작원에 포섭되어 북한방문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에 들어가 간첩활동을 하던 LA교포로 북괴해외공작망과 연결되어 우회침투로 재미동포중 입국대상자나 국내연고자들을 포섭, 해외여행, 이민주선등의 방법으로 입북을 유인하고, 북괴의 우월성 찬양, 국내사정 탐지, 수집등의 간첩활동을 벌여왔음이 죄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재외교포에게 주는 교훈은 북한방문에대한 더한층의 조심성과 신중한 검토로 되도록이면 북한행을 삼가거나, 평화통일후로 미루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삼년래 캐나다교포및 재미교포들의 북한방문이 활성화되고 있음은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출신 교포의 고향방문, 특히 노부모 생존시에 찾아뵙고, 형제등 친척방문차의 북한방문 열망은 절절한 혈육의정을 느끼게하는 민족비극의 단면으로동족인 어느누가 공감을 금할 수 있으랴! 그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이다.

그러나 실정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혈육상봉, 고향산천 방문이라는순수하고 단순한 염원과는달리 그 결과는 복잡하고 불순한 복합적 후유증을 빚기가 일쑤임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다. 그것이 "빙산의 1각"으로 노출된것이이번 LA교포의 간첩사건이라 하겠다.

세계 공산국가중에서 가장 극성스럽고 악랄한 평양정권이 입국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선 자기네 목적에 이롭거나 이용가치가있는 인물인지 여부를 사전검토후 받아들일 것은 당연지사이며, 그들이 입국자들에게 극성스러울 정도로 치근거리며 우대하는속셈또한 불문가지(不問可知)한 일이다.

한가지 뚜렷한 사실은평양정권은 결코 잇속없는일은 안한다는 점이다. 조금이라고 기회가 생기기만하면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세뇌하여 저네들의목적달성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은 수없이 입증된 일이다.

그들이 요즈음 와서는더 한층 열띠게 해외교포들을 포섭하려 들고, 미주에 재일 조총련같은 제2의 조직을 획책하고 있음도 밝혀지고있다.

선량한 교포가 순전히고향방문이라는 목적으로 북한에 찾아갔다가 자칫 북쪽당국에게 설득 당하거나 이용 당하여 종국에가서지기도 가족도 구렁에 빠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크낙한 불행인가!

보다 현명한 사람은 동서남북을 명석하고 정확하게 잴 줄 알며, 때와 장소를 가려 행동이며 처신에 있어 후회없는 길을 택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하겠다.

한.터공동위원회

무역,경제협력 협의

(서울10일=연합)한국과 터키사이에 처음으로 11월12일~13일 터키수도 앙카라에서 쌍무무역및 경제협력 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9일 외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회담은 77년5월양국이 체결한 무역증진및경제, 기술협력에 대한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로블로가 싸

미라클은 진셈

지난주 수년래 최대의수퍼마켓의 가격전쟁을 점화시킨 장본인 미라클은 로블로 보다비싸, 가격전에서 실패한 셈이라고 스타지가 보도했다.

임의로 고른 39개품목의 식품 총가격을 계산한 결과 미라클은 $83.18였으며, 도미니언은 이보다$1.87쌌고, 로블로는 $4.39 이 싸, 결국 로블로가 가격면에서 가장 소비자에 유리한 것으로 판명됐다.

특사임명법 개정

장관급사절 부총리자격

(서울 10일=연합) 8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특사임명에 관한 시행령개정을 승인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장관급 사절들은 해외임무 수행시 부총리자격을 가지며, 특별사절은 외무부장관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법은 또 대통령특사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에게 대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뱅쿠버 6개교회

성탄연합음악예배

(뱅쿠버지사)뱅쿠버의 6개신교 교회 합동의 성탄절 연합음악예배가 12월20일(일) 시내 한인장로교회에서 열린다.

각교회성가대는 이날 각 1~2곡씩 성가를 부르고 연합성가대는 김신옥씨 지휘로 헨델의 『메씨아』를 합창한다. 이 음악예배에 참가할 교회는 아래와 같다. 연합, 제일장로, 순복음, 한인장로, 침례, 한인교회.

서울올림픽 앞두고 한국,적극외교추진

〈서울본사전화〉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 개최확정으로 적극적 외교를 추진할 방침이다.

외무부소식통은 한국외교의 정책중의 하나인 남북한UN동시가입을 추진하고 비동맹국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교를 벌이게 된다고 전했다.

◇영국에 상륙한 포니,한국현대자동차의「포니」가 런던 자동차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미 유럽의 몇몇 시장에 진출한 포니는 일제자동차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고.

社 告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지난 5월1일 사옥을 이전했읍니다만 아직 교민 여러분을 새 사옥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치 못했읍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세모(歲暮)의 어수선함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 좋은 말씀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 필자, 독자, 광고주, 선후배 제현을 잠시 모시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읍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때 : 1981년11월14일(토) 하오2시~하오7시
곳 : 본사 1025 DUPONT ST. TORONTO
(도버코트·로드 서쪽)
전화 : 533-2361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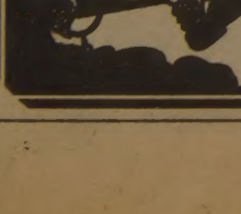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 HOUSE
○ 사진액자전문(각 종류의 액자구비)
○ 동양화 취급
○ 유화, 초상화, 서양화
○ CUSTOM PAINTNG
○ CLEANING & RESTORING

1286 WESTON RD(에그린톤×웨스톤)
전화 : (B)243-0233 (R)651-2261
김 석 환

1981년도
연.고대 성탄및 송년파티
년말을 맞이하여 사학의 쌍벽 연세대와 고려대의 교우동문을 모시는 우정의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981년12월5일(토요일)
장소 : 뉴-서울 칵테일 : 7PM
디 너 : 7 : 30PM
경품및 선물 : 칼라TV, 보석, 기타.
※모든 교우에게 독수리와 호랑이 디자인이 그려져 있는 KEY CHAIN을 드림.
연락처 : 연세대 총무 심홍 494-2309
고려대 총무 조병역 444-9755
후원 : 연세대학교 동문회
주최 : 고려대학교 교우회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어른아파트 인권문제 제기

어린이 보호가 시급

저소득층 임대난 가중

토론토시내의 아파트사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 현재 겨우 0.4% 아파트 유휴율(Vacancy rate)을 보이는 토론토아파트는 그나마 어린이를 받지않는 어른전용아파트가 늘어나 자녀가 딸린 저소득층은 표준미달의 주택이나 셋방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토론토 시 관리에 의하면 시내에는 가족을 위한 아파트수가 너무 적어 시에서는 어른전용아파트의 법적규제를 주정부에 요청할것을 고려하고있다.

현재 베이, 블루어, 셔본, 칼톤가를 경계로 하는 중심가지역은 어린이허용 아파트율이 10%미만이다.

이스트·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79년조사에 의하면 이스트·욕지역 아파트중 42%가 어린이를 받지않았다.

온타리오주 의회에서 심의중인 개정법안에는임대주가 가족이 있다는 이유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차별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나 동법안의 다른조항에서는 기존「어른전용」 아파트의 기득권은 인정한다. 동법안이 의결되면 내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같은 개정법안 진행에 대해 어린이 보호단체인 『아동들을 위한 정의』 (Justice For Children)의 간부 마이클·베이씨는 "이번 개정법안은 앞에서는 임대주의 차별임대를 금지하고 뒤에서는 허용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베이씨는 임대주에게 차별임대권리를 허용하므로써 개인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니토바, 퀘벡, 뉴브룬스윅과 미국의 6개주는 어린이를 가진 가족에 대한 거주지차별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로버트·엘지 노동성장관은 이런문제는 주택공급의 문제지 절대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어른전용아파트 철폐에 앞장서고 있는 토론토대학 학술단체「도시 어린이」(The Child In The City)는 아파트유휴율이 10~15%로 임대주택부족난을 겪지않는 윈저같은 도시도 임대주가 어린이를 가진 가족에게 임대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지노동장관은 지난봄 인권헌장에서 가족에 대한 차별임대안을 철폐 못하는 것은 어른전용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개개인의 합리적 생활방식이며 조용한곳에서 사는것을 즐길 권리의보호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단체들은 아이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가족의 기본권리인 유용한거주지 화보책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79년에 행한 미 주택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어른전용아파트 거주자중 오직 20%만이 아이들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때문에 그 아파트를 선택했으며, 약 20%의 거주자들만 만약아이들을 받는다면 당장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임대주들은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더 시끄럽고 파괴적이며 이들때문에 더많은 유지비가 든다고 말하나 어린이보호단체들은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말썽을 부린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자 존·베이트씨는 어른전용아파트들이 운집한 다운타운학교의 어린이들은 언어와 행동발달면에서 다른치역 어린이들보다 뒤지고 있다며 그 이유로 옥외로 나가기 힘들고, 놀 장소가 없는 아파트의 주위환경과 부모들이 아파트를 잃을 것을 염려, 아이들이 떠들지 못하게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위원회 피오나·넬슨 이사는 "우리는 지금 어린이들에게 공포적이며 혹독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정책도 중요하나 그러나 아동발달문제는 어떠한가? 그들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말하며 어린이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주택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영화화되는 암과의 투병。 ABC-TV는 다음시즌에 암으로 오른발을 절단한 케네디 상원의원의 아들 테드·케네디 주니어군의 암투병기를 드라마화 두시간동안 방영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 커넥티컷주에 있는 웨슬리안대학에 재학중이다

한국인 해외여행 급증

해외여행 자유화정책 이후

(서울10일=연합)9일 외무부 집계에 의하면 3개월전 해외여행자유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한국을 떠난 한국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8월1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정책 실시아래 9일현재 총 1 만550의 여권이 한국인들에게 발급되어 작년 같은기간의 7만2천3부보다 무려 39.6%의 증가를 보였다.

이중 여성들에겐 2만164(20.3%)가 발급되어 작년 동기간보다 61.7%나올라갔다.

여성들의 해외여행 급증은 동시에 해외여행할 수 있는 부부의 연령제한을정부결의로 해제한데 있다. 그동안 부부가 동시에 출국하려면 60세 이상이 되어야 했다.

집계에 의하면 정부는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39,277의 여권을 발행, 가장 높은율을 보였다.

외무부 소식통은 내년 7월부터 정부가 해외의 일가친척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권발급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여행자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년 4천명 국제결혼

미국인과 결혼이 수위

(서울 9일=연합) 서울시청이 작성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매년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수는 4천명 가량이며 이중 90%가 여성이다.

년도별 통계를 보면 78년 4.465명, 79년 4311명, 80년 4420명이며 81년 10월말 현재 3.500명이다.

80년 통계중 89%를 차지한 3.920명의 여성중 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3.664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그다음이 캐나다인(62명)영국인(40명) 중국인(26명) 독일인(20명), 필리핀인(15명)순이다.

나머지 93명의 여성들은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싱가폴, 브라질, 일본, 놀웨이, 칠레, 이란및 심지어 공산국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한 37개국의 남성들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공에 대규모군사원조 계획

중공군현대화로 소련세력에 대응

미국 정부는 한때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던 중공군대를 재강화하기 위해 수십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군사원조를 계획하고 있다.

레건 대통령은 이미 북경당국과 현대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합의를 본바 있는데 1.중공군 현대화가 아시아지역의 소련군사력에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믿을만한 대응세력이 되며 2.오랜 우방인 자유중국이 중공군의 현대화를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이냐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중공이 군대현대화를 계획하는 최우선 목표는 세계최대의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소련의 비핵무기 공격을 격퇴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군사기술및 장비 개선에 있어 상당히 조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공이 너무 빨리 군현대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이 자유중국에 F-15,F-16등 고성능 전투기를 공급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

좋은 예로 조사양 당주석은 지난 10월22,23일 멕시

중공국민 생활수준 높히는 목적도

무기외상판매등 싼노동력 무기생산방법검토

코 캔쿤에서 열렸던 남북국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자유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경우 미-중공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중공은 현재 육군 390만명,공군 49만명,해군 36만명등 470만의 대 병력을 보유,숫자상으로는 엄청난 것이지만 실제 전력을 분석해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우선 공군 보유의 6천대 비행기와 1천대의 선박중 대부분이 성능불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많은 비행기들이 아주 구식의 레이더 장치를 갖고있어 대낮이나 아니면 날씨가 좋은날에야 비행을 할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다.

해군 보유의 선박도 해안지역을 수비할수 있는 정도의 낡은것들이며 탱크,포화, 군용트럭등 장비들도 극히 숫자가 모자란 형편이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공의 11개 장갑사단을 현대화 하는데만도 6억6천4백만달러 이상이 필요하며 서부전선의 사단병력에 대한 무기공급을 포함할 경우 1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1979년 미 국방성은 중공군을 현대화하여 소련의 지상공격을 격퇴할수 있는 선으로 개선시키는데는 410억~63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바 있다.

하지만 북쪽으로는 소련의 위협과 남쪽으로는 베트남의 위협을 받고있는 중공으로서는 군대의 현대화가 불가피 하며 미국으로서도 중공군을 강화함으로써 중공-소련 국경근처에 주둔하고있는 46개 소련 사단과 전략함대를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특히 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시설을 파괴할수 있도록 중공 공군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소련군의 중동지역 이동 가능성의 억제와 장거리용 해군 전투함을 보강,소련의 태평양지역 해군력에 대한 견제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중공의 현대화는 소련이 아시아지역에서 중공을 고립 시키기 위한 모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아시아국가 지도자들은 염려하고 있으며 자칫 서부유럽까지 번져나가 미·소 평화유지에도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중공이 조심스럽게 군사력 확장을 계획하는 이유에는 소련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농업,소비자 상품,경공업등에 투자, 중공국민의 생활수준을 높히는데도 목적이 있다.

미국도 중공의 국내사정을 고려,현재 대부분 공산국에 대한 외상판매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에게 무기를 외상으로 판매하며 무기공동생산 협정에 따라 중공에 무기공장을 설립,싼 노동력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의 외교관들은 미국과 중공이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보든간에 중공군의 현대화가 10여년이 걸려야 상당한 진전을 볼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중공군의 현대화란 군부만이 아닌 중공전체의 현대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중공군은 전통적으로 방어중심 체제로 구축되어 1930~40년대에 일본군과의 투쟁을 비롯,인해전술을 사용해서 한국 동란시 미군을 꼼짝 못하게 한바 있었으나 이제는 초전에서 일부 지역을 양보한후 침략군들을 포위,삼켜버리는 군대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군 현대화작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40만~1백만명을 대폭 감군할 계획으로 있는 중공 정부지만 역사적으로 정치권력과 떼어 놓을수 없는 관계를 가진 군부 개편에 실패할 경우 군대 현대화는 시작도 하기전에 끝을 보게 될지도 모를것으로 중공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소설「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오늘 쉽니다.

MARVIN—STARR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카보로 지역의 마빈·스타 G.M딜러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서 일하게됐읍니다.
과거의 자동차 세일즈맨의 경험을 토대로 성심 성의껏 여러분께 봉사코자 하오니 언제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신 성 우 배

취급종류 〈PONTIAC〉: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BUICK〉: SKYLARK, CENTURY, ROYAL, LESABRE, ELECTRA, RIVIERA.
〈각종 VAN트럭〉,〈데모카〉,〈USED CAR〉

※ BEST SERVICE IN TORONTO
○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 세일즈맨
○ 최고의 아프터써비스, 토론토지역 최저의 자동차 가격보장。
○ 항상 300—400대의 차를 보유。
○ GMAC 이자율 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 스카보로의 유일한 한국인 세일즈맨

주소 : 3132 EGLINTON AVE.E (마캄 X 에그린톤)
전화 : 264—2311 신 성 우 (PAUL SHIN)

신성우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학생문예〉

우리말의 중요성

번햄고교 석 남 일

〈편집자 주〉: 이글은 10월10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실시된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석남일군(번햄돌프 고교생)의 웅변내용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모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알찬 내용을 담았기에 원고를 얻어 소개한다.

여러분은 여러가지 가정 환경으로 말미암아 고국을 떠나서 먼 이국만리 캐나다에 도착하였을 때는 심한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차츰차츰 고국의 풍습을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고유의 한국말을 잊어버릴 때에 여기 계신 부모님 한분 한분께서는 마음 아프시리라 믿습니다.

맨처음 여기오셔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앞세우고, 모든 일을 해나가셨을 때에 그들이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을 마냥 기특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어를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가 힘들어 지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짧은 이민역사 속에서 우선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소홀히 여기게 되지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은 외국인들과 어깨를 마주대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 캐네디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은 결단코 대한민국의 자손들이지, 외국인들의 자손이 아니란 것을말입니다.

저는 어느날, 한 한국음식점에서 참으로 우스운 말을 듣게 되었읍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자기가 시킨 짜장면 맛을 보고 어머니께 말하기를 "Mom, 짜장면이 추워." 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곧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애, 짜장면이 차갑다고 그러는 거란다."

여러분, 바로 이것 입니다! 천진난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함을 저지를 때에 부모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나쁜 곳으로 쉽게 빠지는 아이들이 한국말 잘 못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 온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만 하신다면 이 철부지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웃사람에게는 존대말을 꼭 붙이는 우리나라, 부모님을 언제나 공경하는 우리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고 구수한 된장국맛같이 고집이 또한 센 우리 민족, 이렇게 빛난 얼을 가지고 태어나신 여러분, 아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세들에게 한국말로 이 "빛난 얼"을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면 삼사대에 이르러 한국에 대한 인식은 과연 무엇이 남겠읍니까?

여기 온지 일세기가 넘는, 중국인들은 비록 옷차림이 더럽다고, 시끄럽다고 모두들 흉을 보지만 그들의 단결과, 조상들의 대대로 내려준 언어만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지 사, 오년 밖에 안된 아이들이 한글은 물론이요,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옛날 신라시대의 풍침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는

첫째는, 아이들을 집에서만은 한국어로 말하게 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는, 부모님께서 는 좀더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요.

세째는, 한국역사책이나 위인책들을 아이들에게 읽도록 권장해야만 할 것이라고 저기 늙으시고 실망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해서 여기 젊음에 불타있는 저는 힘차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요사이 신문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교포 이세들의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실력들이 캐나다는 물론이요, 여러 나라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이렇게 짧은 이민역사 속에서도 이토록 놀라운 재질을 볼 적에 먼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제 삼십육년이란 기나긴 압박속에서도 목숨까지 바쳐 조국과 우리말을 지켜오신 선조님들, 아니 이곳에서 벙어리 취급을 당하시고, 한국말 동무가 없어 외로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과 빛은 오직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세들이 한국말과 고국의 풍습을 터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 혼 축 하

신랑 : 유균환(유제성씨 4남)
신부 : 이미숙양(이명우씨 처제)
때 : 11월14일(토)정오
곳 : 한인천주교회(83 Power St. Tor)
주례 : 고종옥 신부
피로연 : Saiwoo 식당(124－130 Dundas St. W)

교 민 동 정

◇신강용(코트라 시장조사 전문요원)=3년간 몬트리얼 선경물산지사 근무를 마치고 토론토에 돌아온 후 연합상사 설립에 참여,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11월초부터 토론토 한국무역관(KOTRA)에서 시장조사 전문요원으로 뛰고 있다. 3년전까지 KOTRA서 근무, 이번 원대복귀한 셈이다.

신씨는 연합상사 주주로는 그대로 머물고 주말에는 동상사에서 일한다. 고객들의 여전한 성원을 바란다고.

그는 미루어온 학업(York University, MBA)을 재개하는 한편, 주중은 KOTRA에서, 주말마다 연합상사 근무에 집에서는 두 개구장이의 아빠노릇까지 4대사업(?) 겸직에 눈코뜰 새 없는 욕심 한번 대단하다.

◇윤호섭 (가와이피아노 경영) =지난 9월 힐·크레스트몰에 또하나의 피아노음악학원을 설립했다. 윤씨는 교민들의 협력으로 비즈네스가 날로 발전한다고 기뻐했다. 앞으로는 미시사가지역에도 다시 비즈네스를 오픈할 계획. 윤씨는 피아노 판매방법도 염가판매, 이자없는 할부판매, 피아노 렌트등을 연구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시〉

밤에 쓰는 편지

조 정 대

아직도 마음 편치 않는 것은
당신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삶이 노래같이 즐겁지 않는 것은
당신 사랑하는 참 재미를 모르는 탓입니다.

위선으로 높이 쌓인
내 마음의 문턱이
홍수에 못물 터지듯 터지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우리집 뒷뜰에서나
74년도 구형차 속에서나
때로는 가게 단골손님들의 얼굴에서
가끔 당신을 만나면서도
나는 여태 당신의 선한 모습의
참 의미를 다 읽지 못합니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연예 短信

美로 移住한 로렌 소장名畵 반출못해

◎…소피아·로렌이 8백만달러차의 그림을 고스란히 내놓게 되었다.

그레이스王妃 傳記 TV영화로 本人은 「허락 안했다」 밝힌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가 자신의 생을 미니시리즈화 할 ABC-TV의 계획에 불쾌해 하고있다.

그레이스왕비를 대변한 나디아·라프스트씨는 『왕비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허락을 받지않은채 제작중임을 알리고자 하며, 그녀의 사생활권리에 대한 침권침해이므로 방영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 시리즈에서 그레이스 왕비역에는 「찰리스엔젤스」의 스타, 셰릴·래드가 출연케된다.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오른쪽)와 TV영화에서 그레이스 왕비의 여배우시절을 묘사하게 될 셰릴·라드.

한국일보 안내광고

집·방세·하숙

방세놓음 (독신자 원함)
$180 PAPE서브웨이에서3분거리.
☎ : 466－3764. 282－0236

6RM HOUSE FOR RENT(도바코트와 칼레도니아근처)
,버스정유장 근처. 렌트 : $600＋유지비
☎ : 533－4481(마이클)

배구달독 사신고청 533－2361

All Languages Ltd.
"Helping People to Communicate"
번역자들과 해석자
70개국 이상내
Suite 1105, 67 Yonge St., Toronto, Ont. M5E 1J8 361-0303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1982년 Y's MENS
서울세계대회 공연 합창단원 모집

토론토 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후원이사진을 구성하고, 지휘자 안병원 선생(전 숙대 교수 : 「우리의 소원」작곡자)과 반주자 김진숙양(토론토음대 졸)을 모신 본 Y.M.C.A. 합창단은 82년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Y's MENS세계대회에 참가, 공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으로 전세계 대표들에게 캐나다 교포들의 소식을 전하고 전국 주요도시 순회공연, 모국 라디오및 T.V. 출연등의 행사로 모국 국민에게 큰 감명을 주리라 믿습니다.

음악에 소질있는 남녀 젊은이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아 래 —

자 격 : 25세 이하의 남녀로서 합창에 소질이 있는 자
모집인원 : 약 30명
신청마감 : 1981년 11월 14일(토) 하오5시
신청장소 : KOREAN Y.M.C.A. (536－1166)
(ST. CLAIR와 OAKWOOD동북쪽 1블럭)
심 사 : 1981년11월30일 하오5시30분
기 타 : 한국방문시 비행기표 자담(일부할인), 숙식비 일체 무료
이사명단 : 강광선, 강찬영, 강학수, 구상회, 김광용, 김명규, 김문고, 김순창, 김종욱, 김창열, 김대진, 김태현, 송관현, 송의섭, 안병원, 유영갑, 유형승, 윤여경, 이석현, 이영일, 이종우, 이측길, 전대균, 조덕남, 조성호, 조한철, 차선경, 허호영, 최희홍, 한광전, 한상훈, 홍승규.

Y.M.C.A. 합창단 후원이사회장 이 영 현
총 무 호 세 환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금주의 새 리스팅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넷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스토어 헬퍼 급구
능력있는분 풀타임 우대함
☎ : 924－5155 Mr. 박

주말에 근무할 분으로(토, 일)
그로서리 캐쉬어 구함.
☎ : 531－3491

입주해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 : 533－9061 , 241－4384 Mrs. 임

접시닦기 구함
☎ : 960－9035

스포츠 웨어 공장에서 일할 경험있는 재봉사
모집(약간의 영어 요)
☎ : 746－0054 (FINCH & WESTON)

집봐주실 할머니 원함(침식제공)
할아버지 한분만 지키고 계심.
☎ : 669－5084 Mrs. 최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 362－2300

경험있는 여자캐쉬어 구함(풀타임, 파트타임)
261 SCARLETT RD.
☎ : 767－0762

경험있는 FULL TIME 남자헬퍼 구함.
☎ : 597－1115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주중오후(4～11시)에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합니다. (도너스 가게)
스카보로, ☎ : 284－9325 (Mrs. 남)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연령 관계없이 애들을 돌봅니다.
삼복식품옆 핀치지역
☎ : 745－4521 (미세스. 손)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8시～오후4시)
☎ : 531－2689

인형만드는 재봉사 구함
인형만드는 10명의 재봉사와
카터와 끝맺음 하시는분 구함
경험 있으신 분은 포맨(FOREMAN)으로씀
500 KEELE ST, UNIT 408
☎ : 762－7241

회계사 구함(상점경험 요함)
자격 캐나다 대학이나 칼리지 이수
히스 CO. ☎ : 261－2914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스토아 사정에 의해 급매코저함
☎ : 621－3412, 231－5351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TUCK SHOP 매매(아파트밑에 있음)
☎ : 244－0966(아침9～12시, 저녁6～10시사이)

스토아 급매
주 3천불 매상
☎ : 278－5944

밀튼에있는 버라이어티스토어 세일
좋은 수입과 위치
건강상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팔고자함.
☎ : 878－5432(Mr. 프레스)

벡커 후렌차이스 매매
☎ : 742－1281 (Mrs. 최)

2DOOR COOLER 매매
거의 새것임
☎ : 298－3584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야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 E. LEPAPE ONT. LTD, REALTOR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1)빌딩(2층벽돌빌딩)
벽난로2개, 차고4개, 많은차가 주차할 수 있음. 파킹LOT
아스킹 : $210,000 제1모게지 : 62,000(10과2분의1%)
(2)벽돌 방갈로 하우스
5년(12%모게지)
벽돌난로, 3베드룸, 큰리빙룸, 다이닝룸, WORK SHOP
CALL DOVIS BURDA
☎ : 763－5555, 255－3038(CHOLKAN 복덕방)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친 ☎ : 745－5555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사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ROYAL TRUST
극장및 3개의 가게가 달린 코너에 있는 부동산
매매(블루어 선상에 있음)
극장(580석), 모든장비.
면적(6,000 스퀘어피트, 파킹장소 있음
써브웨이 부근.
보다 자세한 정보는
☎ : 532－3391, 924－0117 (KISHOR JANI)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피크링프라자(2개 스토아중 선택)
주매상 : $8000—(1600또는3300스퀘어피트)
에스킹 : $89,000＋스탁
● 오샤와(MAIN ST)
주매상 : $9000(INCLUDING LUNCH COUNTER
＋로타리 티켓)
렌트 : $375, 아스킹 : $42,000＋스탁
※BAGOT REALTY INC(REALTOR)
☎ : 1－579－4010
AFTER HOURS 683－8154 프랜크·마그네스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
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집매매 또는 세놓음
4 BDRM, 2 W.R.M, REC.RM, C.AIRCON
학교와 교통편리
ROYAL YORK RD. AT MANCHESTER ST.
☎ : 368－9018

카펫 · 카텐

가나안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제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미 용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SOO PIANO SERVICE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851－9324(B) 226－530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웅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한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창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 · 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Mrs남

SOMÉ JEWELLERY 쏘메쎄리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구 혼

구 혼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초, 재혼을 불문코 성실한분을 찾고자 합니다.
재능을 갖추고 있음(특히 가게하실분)
☎ : 469－1521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

〃景氣 浮揚策 필요없다〃

申부총리 金利·換率、物價동향따라·實勢化

內需·주택 活性化대책 강구

申秉鉉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정부는 현재로서 종합景氣浮揚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보며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金利、換率문제에 대해서는 시장實勢나 물가동향에따라 신축성있게 유동화하는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의 물가가 17~18%로 안정되고 내년에도 10~14%로 안정될 계획이어서 현재의 金利수준이 이미 正의 實質금리를 보장하는등 금리인하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지적、연내 금리소폭 인하의뜻을 강력히 시사했다。그러나換率은 그동안의 달러貨強勢등 요인으로 購買力면에서 우리나라의 원貨가치가 약간 高平價되어있는것은 사실이나 勞動單價지수면에선 아직도 低平價되어있고최근 美프라임·레이트인하등달러弱勢化의 전망도있어 한꺼번에 4~5%씩의 급격한환율 인상은 불필요하며 대신 연간5%란 연초의 정부換率안정목표에 관계없이 현재의 프로팅·시스템하에서 換率을 實勢유동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5~6%의 전망에서 7%가까운 성장세로 보다 호전될전망이며 秋穀풍작으로 농가소득증대는 약1조5천억원에달해 內需구매력을 자극할여지가 생겼고 原油價인상등에따른 소득流出로 그동안 급격히 악화되어온 우리의 對外交易條件도 금년하반기들어 크게 개선되고있는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볼필요는 없으며 정부의 부양책은 현단계에서 경기의 過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78년이래의 不動産관련 각종행정규제의 철폐를 비롯、침체된 內需와 주택부문등 부문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活性化대책은 강구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고금리에따라 금년들어 약8~9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의 外債이자추가부담과 지난3·4분기중 약1천6백억원에 달하는 단기무역신용감소、公社債시장에서의 금리상승 추세등에 비춰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4·4분기중 양곡、재정증권、電話公債등 약5천억원에 달하는 國公債의 稅收 동향과함께 규모를 줄이거나 발행시기를 한두달지연시켜 財政사이드의 市中자금압박을 완화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년들어 가장악화되었다는 지난 9월중의 不渡率이 0·1%수준으로 작년 평균 0·17%보다 오히려 낮은점을 지적、巷間의 자금난危機說을 강력부인했고 부진하다는 수출신용장來倒실적도 9월의 12억달러에서 10월에는 14억3천6백만달러로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山地개발 長期대책 필요〃

全대통령「育林의날」맞아 樹種·재배기술도입

全斗煥 대통령은 7일『모든 산악지대를장기적인안목에서 개발해 후손들이 활용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育林의날」을 맞아 영부인 李順子여사、靑瓦臺직원들과 함께 京畿道城南市靈中洞 야산에서 지난 植木日때 심은 찬나무에 施肥를 한뒤 관계자들과 정신문화연구원 식당에서 오찬을 나누며 이같이 강조하고『高山지대등에 맞는 樹種을 연구개발하고 이를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기후조건과 비슷한 외국에 연구팀을 보내 그들의 樹種및 재배기술을 도입토록 하라』고 당부했다。〈사진〉

全대통령은 또『지금까지 사람의 왕래가 쉬운 山地에만 식목、造林해온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노력이 더들더라도 사람의 손이 미치지않는 奧地 산간지대까지도 식목과 造林을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전국토의 70%인 山地를 활용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앞으로 학생、공무원、직장인등에 실질적인 식목을할수있도록 유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北傀、金日成생일 誠金강요

金正日、朝總聯에 百10億엔 배당

【東京6日=聯】북괴는 최근 金日成 70세기념충성의 일환으로 내년 4월15일까지1백10억엔의 성금을 조달하도록 조총련에 지시했음이 6일 밝혀졌다。

조총련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9월 북괴를 방문한 李季白조총련부의장에게 金正日이 이같은 일부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히고 조달방법은 구체적으로 유력 상공인으로부터 40억엔、신용조합으로부터 30억엔、그밖에 성금으로 40억엔이라고폭로했다。

조총련중앙의장 韓德銖는 북괴로부터 이같은 임무를부여받고온 李季白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조총련실정에 맞지않은 지시를 내렸다』고 李에게 화를 낸것으로 이 소식통은 전했다。

亞·太뉴스網발족

聯通 理事社被選

【칼라룸푸르6日=聯】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OANA)는 6일 새로운 뉴스교환체제하에 역내19개국의 23개통신사를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뉴스망(ANN)을 발족시킴과 동시에 연합통신사를 포함한 5개통신사를 理事社로 선출했다。

이날 OANA총회에서 선출된 5개이사사는 한국의 연합통신과 이란의파르스통신、인도네시아의 안타라통신및 라오스의 KPL통신이다。

北傀유럽公館 또 보드카密輸

노르웨이紙폭로

【제네바6日=聯】5년전 오슬로주재 北傀대사관의 보드카밀수사건이 노르웨이당국에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北傀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같은 사건이 오슬로주재대사관뿐만 아니라 코펜하겐주재대사관및 유럽지역 수개국의 다른 대사관에서도 대대적으로 벌어졌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노르웨이의 사르프스·아르베이데르블라드紙가 최근 보도했다。

사르프스市에서 발간되는 아르베이데르블라드紙는 지난10월24일『5년전 일을 기억하십니까。사르프스보로그지역에 보드카가 쏟아져 들어왔던 사건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은 북괴대사관의 대대적인 밀수행위를 폭로하면서 북괴대사관의 불법밀수행위로 얻어진 이익금은 平壤에 보내져 그들의 국가예산중 일부가 됐다고 전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立冬인 7일 우리나라는 예년보다 5~6도낮은 올들어 가장 추운날씨를 보였으며 서울지방에서는 첫얼음이 얼었다。 【서울貞陵의 북악터널에서】

全國에 寒波

오늘 中部이북 零下7도

週初까지 춥고 눈도 내려

全州 영하4도、光州 영하3도 예보

본격적인 입동(立冬)추위가 닥쳤다。立冬인 7일 우리나라의 기온은 濟州등 남부일부지방을 제외한 전지역이 영하권으로 뚝떨어졌으며 일요일인 8일엔 더욱 쌀쌀해져 중부이북지방의경우 영하7도까지 내려가는등 본격적인 첫겨울추위를 보일 전망인데 이 추위는 내주초까지 계속、12일에는 충청이북지방에서는 눈이내릴것같다。

7일 아침 올겨울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간 서울지방의 기온은 예년보다 5·5도나 낮은 영하3·3도를 기록、첫얼음이 얼었고 大關嶺이 영하7도、春川 영하4도、水原영하3도、全州영하0·4도를 각각기록했다。

중앙관상대는 몽고지방에 중심을둔 차가운고기압이 우리나라쪽으로 확장돼와 생긴 이번 추위로 8일엔 春川이 영하7도、서울 영하6도、大田 영하4도、全州 영하4도、光州 영하3도로 7일보다 더추워지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관상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는 쌀쌀하나 전반적으로 맑겠으며 북서계절풍이 다소 강하게불어 서해안지방과 도서지방 그리고 내륙산간 지방에서는 가끔흐리고 눈이 오는곳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감기患者 급증 農家일손 바빠

한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자 도시의 병원、약국등에는 감기、기관지염환자들이 부쩍 늘어났고、김장용 작물을 재배한 근교농업지역에서는 미처 거두어들이지 못한 무우、배추등에 가마니를 내다덮고 비닐을 씌우는등 냉해극복에 일손이 바빠졌다。

프렘 泰首相 오늘 來韓

◇프렘泰國수상

泰國의 프렘·틴술라논다首相이、南悳祐국무총리의 초청을받고 8일하오 5시30분 來韓한다。

씻·싸웨씰라外相등 5명의 閣僚級을 포함한 수행원 40명과 기업인25명을 대동하고 來韓하는 프렘수상은 오는 10일까지 滯韓하면서 全斗煥 대통령을 예방하는 한편 南총리와 수상회담을갖고 兩國간의 공동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할예정이다。

兩國수상은 특히 두나라가 위치한 지역정세를 검토、安保的連帶感을 공고히하는 한편 정치안보、경제협력및 통상확대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것으로보인다。

프렘수상은 全대통령의 아세안순방이후 아세안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행정수반이다。

◇訪韓日程▲8일=하오5시30분 金浦공항도착 ▲9일=국립묘지참배、환영행사참석(中央廳)、수상회담、靑瓦臺예방、經濟4단체 주최오찬、泰國軍참전기념비참배및 前方시찰、국무총리주최만찬 ▲10일=水原새마을지도자研修院및 모범새마을시찰、기자회견、대통령주최만찬、離韓(하오8시30분)

◇閣僚級隨行員=▲씻·싸웨씰라 外相▲챠차이·춘하완 工業相▲쏨마이·훈트라꾼 財務相▲쏠리·마하싼타나 首相室장관▲아낫·아파피롬 産業相

連動金利制 검토

국회豫決委 〃金利정책 金通委전담〃

국회는 7일 豫決委를 열고 재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金湜 高貴男 兩在寺(이상民正) 李奉模(국민) 金進基 梁在淸의원(民韓)등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 重化學공업에 대한 근본대책과 租稅정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重化學공업에대한 집중투자가 中小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있다』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國營기업중 특정부문을 제외하고 民營化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들의원은『국민의조세부담면에서 내년예산은 過多하다고 전제한뒤 ▲일반행정비의 過多책정 ▲금년對比증가예산 1조7천억원중 15·2%인 2천6백50억원만 경제개발비에 充當하고 84·8%를 소비성경비에 充當한이유등을 따졌다。

이에대해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정부는 앞으로 農外소득의 개발을 위해『農外所得企劃團』을 곧발족시키겠다』고 밝히고『지방도매시장건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耕地정리의 농민부담 20%중 1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申秉鉉부총리는 또 金利引下부분에대해『올해물가가 16~18%로 안정돼있기때문에 82년도에는 金利가 引下될것이 분명하다』고 전제한뒤『그러나 金利문제는 일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등 分離金利제도를 생각할때가 됐다』고 밝혔다。

申부총리는 이와관련『앞으로 금융통화위에서 金利정책을 전담、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換率과 같이 적정한 수준으로 流動化시킬수있는 連動金利制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申부총리는 또 공무원처우에 언급、『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은 9%인상될것』이라고 밝히고『5급이하의 장기근속(10년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8·3조치의 해제를 검토할시기가 성숙해있다』고 말한뒤『그러나 지방재정 법정교부율은 8·3조치이전인 17·6%선으로 유지하려면 3천억원이상이 추가 계상돼야하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법정교부율 환원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錄音2면

財政委長 李弼雨의원 대변인에 李成一의원

국민 黨職개편

金鍾哲국민당총재는 7일 공석중인 재정위원장에 李弼雨의원을、金鍾河대변인후임에 李成一의원을 임명하는등 黨職일부를 개편했다。

국민당은 또 정책위부의장에 姜棋弼의원、黨紀委부위원장에 金翰宣의원、총재비서실장에 趙炳鳳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李弼雨、李成一、李奉模의원을 추가로 당무위원에 임명、당무위원을 18명에서 21명으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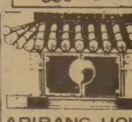
社會漫評

「立冬」을 없애자…

地平線

선진국중에서도 실업자가 많아 골치를 앓고있는 영국에서는 술이 늘어나고있다한다。작년 한해동안 주정꾼이 런던에서 술주정을하다 구속된 사람은 4만5천1백2명으로 1년전보다 10%가 늘었다。불경기가 휩쓸면서 사람들은 술로 시름을 잊으려고 하기때문인것같다。그래서 세계경제가 불경기로 허덕이고 있지만 술장사만은 그럭저럭 별탈없이 지내고있다。▼그러나 호주머니가 쪼들리는만큼 역시 술꾼들의 입맛도 달라지고있다。값비싼 고급위스키 대신 값싼 위스키나 포도주의 소비가 늘고있는 것이다。세계 위스키시장을 지배하고있는 영국 스코틀랜드산의 스카치·위스키는 79~80년도에 수출량이 13%나 떨어졌다。스카치·위스키 수출량의 27%를 퍼마시는 미국사람들의 입맛이 달라진게 가장 큰 원인의 하나다。▼미국의 술꾼들은 최근몇해동안 백포도주같은 포도주를 해마다 10%이상씩 더 마시고 있다。인구가 늘어나는데도 위스키소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영국에서도 포도주소비가 작년에 12·7%나 늘었고、서독에서는 술소비량이 제자리걸음인데도 포도주만은 늘고있다。그래서 영국의경우 위스키소비는 올해에 10%떨어질거라는예상이다。▼술장사의 장삿속이야 어쨌든 술은 지금 선진국과 동유럽 공산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가되고있다。소련에서는 알콜중독자를 공짜로 치료해주고있다。폴란드에서는 술을 배급제로한뒤에 범죄가 10%나 떨어졌다고한다。미국에는 알콜중독환자가 1천4백만이나돼서 알콜병원이 재미를보고있다한다。영국에서는 간경변증으로 죽는 사람이 28년동안에 2배로 뛰어 약2천명이됐다。▼술은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더 해롭다고 미국 매사추세츠종합병원의 해너박사는 경고하고있다。여성해방바람을 타고「술의 평등현상」이 일고있지만 여자의 주량은 남자의 3분의1밖에 못된다고 그는 말하고있다。미국의 암협회에 의하면 술꾼은 하루담배 두갑을 피우는 골초보다도 口腔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 하였다。▼영국의 알콜중독평의회는 모든 술병에「경고문」을 붙이자고 제의하고있다。담배갑에 경고문을 붙이는것과 같은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이런문제는 미리미리 연구하는게 좋다。고급위스키가 줄어드는 세계적인 현상과 달리 우리의 경우 중간이라고 할수있는 청주만이 작년의 64%로 떨어지고있다。아직도 우리의 술꾼들은「고도성장」을계속할위험성이 있다는증거인것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일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KOREAN AIR LINES

OTHER BUSINESS CLASS

KAL PRESTIGE CLASS

비좁은 좌석 · 넓직한 좌석

같은 여행길에도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읍니다.

대한항공의 태평양 노선 B747 점보기에는 여러분께서 더욱 편안히 여행 하시도록 PRESTIGE CLASS를 새로 마련했읍니다.

새로운 Prestige Class 의 Dreamerette Seat 침대겸용의자는 등받침이 50°까지 기울어지는 크고 넓은 부드러운 가죽의자이며 좌석 앞의 넓은 공간은 여러분의 긴 여행을 더욱 안락하게 해 드릴것 입니다.

2등 정상운임(혹은 직행운임)에 $50을 추가 지불하시면 Prestige Class 의 편한 좌석에서 1등 써비스와 같은 오도불과 샴페인, 와인 등 음료를 무료로 즐기시게 되며 또한 First Class 카운터를 이용하게되므로 신속한 탑승수속은 물론 목적지 도착후에도 기다릴 필요없이 수화물을 즉시 찾으시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미주에서 매주 20회 서울로 출발하는 유일한 항공사 입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 11회, 뉴욕에서 주 3회 그리고 호노루루에서 주 6회 출발하므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읍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예절로 정성껏 모시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Prestige Class 를 이용해 보세요.

편명	KE001	KE005	KE015	편명	KE007
요일	화·목·토·일	목·일	월·화·수·금·토	요일	화·목·[illegible]·일
로스앤젤리스	10:00 ▼	23:20 ▼	23:20	뉴욕	23:55
호노루루	12:20 13:30 ▼	01:40+1 03:00+1	▼		▼
동경	16:10+1 17:20+1 ▼	▼			
서울	19:30+1	07:30+2	07:20+2	서울	06:50+2

KAL 大韓航空

※운임 또는 예약에 대하여는 대한항공 또는 지정여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여행사 : 한국여행사(531-4607), 신세계여행사(536-2155) 서울여행사(535-6004) 제일여행사(535-2377), 토론토영업소 : (416) 862-8250

蘇、「힘의 威脅」불용
유럽의 武力增强은 세계平和위태
우스티노프 國防相

【모스크바6日AP·AFP=聯合】소련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는 6일 소련이 『선제핵공격』을 통해 미·소핵전쟁에서 승리를 희망하고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소련의 『군사원칙』을 왜곡하기 위한 『계획적인 허위날조』라고 비난하고 소련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장래에도 힘의입장을 통한 대소대화와 위협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스티노프국방상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64주년 기념일을 하루앞둔 이날 전국에 TV중계된 기념연설을 통해 미국이◆유럽의 무력증강추진◆일본군국주의 고무◆대쿠바위협정책계속및◆중동에대한 무기판매행위로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하고있다고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다.

애매하고 條理없어
蘇「示威핵공격」美解明 비난

【모스크바6日AP=聯合】소련은 6일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對소시위용 핵무기공격개념에 관한 미국의 해명이 『애매모호』할뿐더러 백악관대변인의 설명조차 『조리가 닿지않는다』고 비난했다.

소련관영타스통신은 이날 對소시위용핵공격개념에 관한 5일밤의 미국측 성명이 애매한 내용이어서 기자들도 소련에 대한 그같은 공격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는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의 말을 믿어야할지 아니면 그같은 계획이 있을수 없다는 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의 말을 신용해야할지 어리둥절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유럽 反核물결 부채질
「示威核공격」·"蘇潛艦 核적재"등

헤이그·스웨덴發言 큰 과오

【본6日AP=聯合】핵무기와관련, 이틀동안 잇달아 일어난 美國과 蘇聯의 과오는 점점 확산되고있는 유럽의 평화주의운동의 입장만을 강화시켰다고 외교관측통들이 6일 지적했다.

蘇聯의 유럽침공이있을 경우 경고조치로 시위적핵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의 발언과 스웨덴해역에서 좌초된 蘇聯잠수함에 핵무기가 적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스웨덴측의 폭로가 바로 양대국이 저지른 최근의 과오이다.

西獨의 한고위관리는 헤이그장관의 발언이 시기적으로 특히 불운했다면서 평화주의자들의 反核논쟁을 고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뿐이라고 불평했다. 西獨은 공식적으로는 헤이그장관의 실언은 美國內문제라며 개입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나 3주전 레이건 美대통령이 유럽에 국한된 핵전이 일어날수있다고말해 논란을 불러왔는데다 헤이그장관이 또다시 실언한데대해 불평이 대단하다.

한편 평화주의자들은 스웨덴해역에서 좌초된 蘇聯잠수함에 핵무기가 적재됐을 가능성이있다는 스웨덴의 주장을 反核운동에 이용할것이라고 외교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오는30일 열릴 美·蘇간 무기제한회담을 앞두고 일어난 이 사건은 중거리핵무기의 유럽배치를 위한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의 요구에 한층더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의 社民黨정책을 지지해왔던 노이에·루르·차이퉁은 蘇聯에대한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의 신뢰는 깨져버렸다면서 蘇聯이 발트해에 첩보잠수함을 밀파하고 있는 마당에 北部유럽에 비핵지대를 창설하자는 蘇聯의 제의를 어떻게 믿을수있나고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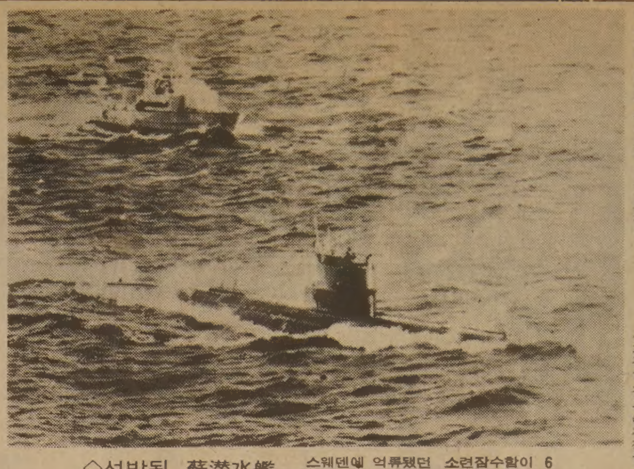
"美·蘇核戰爭문턱에"
3명의 美核과학자 警告

【워싱턴6日AP=聯合】3명의 미핵과학자들은 6일 미국이 핵전쟁을 승리로 이끌수있다는 그릇된 판단아래 핵전쟁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물리학과의 헨리·켄들 교수는 이날 핵전쟁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전국 궐기대회 개최일정을 발표하기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핵전쟁을 이겨낼수 있으며 또 핵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그것을 유럽에만 국한시킬수 있다고하는 판단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핵전쟁의 위험은 현실이며, 지금도 증대되고있다』고 강조했다.

켄들교수는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의 문턱에 도달해있다고 역설하면서 『우리(과학자들)는 핵전쟁터로 표류해 가고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있는 이나라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싶다』고 말했다.

핵전쟁의 발발위험을 우려하는 미과학자들의 한 단체를 이끌고 있는 켄들교수는 오는11일 전국의 1백50개 대학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선포하기위한 전국규모의 궐기대회가 일제히 전개될것이라고 밝혔다.



◇석방된 蘇潛水艦 스웨덴에 억류됐던 소련잠수함이 6일 스웨덴경비정의 감호아래 석방되고 있다. 【스톡홀름6日AP電送=聯合】

美、核戰略논쟁再燃
行政府·閣僚불화노골화

【워싱턴6日外電=聯合】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소련에대해 시위적 핵공격계획을갖고 있다고한 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과 뒤이어 이를 정면 부인한 캐스퍼·와인버거 국방장관간의 충돌은 그동안 쌓여온 美정부각료간의 불화를 노골화시키는한편 미정부가 언급하기를 꺼려온 핵전략에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헤이그장관과 와인버거장관의 충돌은 최근 레이건미대통령이 유럽에서의 제한핵전가능성을 시사하여 큰파문을 일으킨지 불과 3주일도 못된 싯점에서,그리고 헤이그장관과 백악관 보좌관들간의 불화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것으로 레이건행정부를 난처한 입장에몰아넣고 있다.

새癌治療劑「하이드로마」
美 의학硏究陣개발 동물실험중
癌세포만찾아 파괴…抗體생산 빨라
正常·종양세포 혼합해서 만든 細胞

海外話題

【휴스턴(美텍사스州)6日UPI=聯合】미국의 한 의학연구진은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찾아내 이를 파괴하는 새로운형태의 세포를 개발, 현재 동물실험중에 있는것으로 6일 밝혀졌다.

美잉글랜드州 노팅검대학 암연구소의 로버트·볼드윈박사는 6일 폐막된 암연구회의에서 유전학적연구의 소산으로서 『하이드로마』라 불리는 새로운 암치료제를 개발해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정상적인 세포와 속성성장 종양세포를 혼합해만든 일종의 세포라고 말했다.

볼드윈박사는 이『하이드로마』가 특정세포를 대상으로 이를 파괴하는 항체를 급속히 생산해내며 이 일반통행 적항체가 암과 전염된 세포를 찾아내 이러한 세포에 달라붙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드로마』가 병든 세포를 추적, 확인하는외에 환부 바로 그지점에 의약과 방사선을 운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드로마』와 같이 생산해내는 항체가 앞으로 수년이내에 커다란 의학발전을 이룩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다른 연구가들은 이『암치료무기』가 쥐를 대상으로 실험중에 있음을 밝히면서 동물실험결과 가 암치료의 주요돌파구가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하이드로마』가 당분간은일반적으로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政府와 타협용의
「敎會등 3者會談」관련
폴란드自由勞組

【바르샤바6日AP·AFP=聯合】폴란드의 일부지역에서 파업이 계속되고있는가운데 폴란드자유노조는 6일 보이체흐·야루젤스키수상이 노조에 의해 제기된 모든 주요문제에관해 협상할용의를 밝혔다면서 노조측이 정부당국과의 회담에서 양보나 타협할용의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자유노조는 이날 야루젤스키수상, 레흐·바웬사자유노조위원장및 요시프·글렘프가톨릭대주교등 3인이 지난4일 회동한 사상 유례없는 3자회담에관한 성명을통해 그같이 말했다.

이성명은 야루젤스키 수상이 이 회담에서 『협상이 건설적이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 만족을 줄수 있어야한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양보용의와 입장의 신축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蘇艦2척 大韓海峽 南進
潛水艦 감시선…日구축함이 포착

【東京7日UPI=聯合】소련함정2척이 7일 大韓海峽에서 남진하고있는것이 목격됐다고 일본해상보안청이 밝혔다.

소련함정중 1척은 6천7백50톤의 우그라급잠수함감시선이며 다른1척은 4백톤의 유르카급掃海艇으로 7일 상오8시(한국시간) 일본구축함에 의해 포착됐다.

이디오피아 蘇基地 3곳 追加건설

【도하(카타르)6日AFP=聯合】소련은 이디오피아에 3개의 군사기지를 새로 건설했으며 이중에는 아라비아반도와 동북아프리카를 가르는 바브·알·만다브해협의 해운상황을 탐지할수있는 것이라고 에리트리아분리주의운동단체의 한 간부가 6일 말했다. 보이며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外信 短信

◆波 대규모 在所者폭동

【바르샤바6日AP=聯合】폴란드북부 카민스크시의 한교도소에서 5일 대규모 재소자폭동이 발생해 재소자2명이 숨졌다고 폴란드관영 P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PAP통신은 5일밤 1천여명의 재소자들이 방화와함께 폭동을일으켰으나 출동한 보안군에의해 6일상오 진압됐다고 전했는데 2명의재소자가 사망한경위는 밝히지않았다.

◆사우디皇太子 내달訪美

【제다(사우디아라비아)6日AP=聯合】파하드사우디황태자는 레이건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위해 오는12월1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사우디의 영자신문 아랍뉴스지가 6일 보도했다.

사우디를 사실상 통치하고있는 파하드황태자는 당초 보다 빨리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對사우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판매안의 의회승인이 연기됨에따라 그동안 계획이 연기되어왔다.

◆埃特檢、총7百18명체포

【카이로6日AP=聯合】이집트국가보안법정의 특별검사는 지난10월6일 발생한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암살사건과 관련, 총7백18명을 체포하여 이중65명을 암살관련및 정부전복가담혐의로정식기소했다고 6일 반관영 알·아람紙가 보도했다.

◆브래디白聖館공보비서退院

【워싱턴6日外電=聯合】지난3월 레이건미 대통령피격당시 중상을입고 입원치료중이던 제임즈·브래디백악관수석공보비서가 오는9일 백악관공보실 개축준공식에 참석,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준공테이프를 끊을 예정이라고 래리·스피크스백악관부대변인이 6일 밝혔다.

◆波、올들어2만5백여移住

【제네바6日UPI=聯合】서방세계로 넘어온 폴란드인의수는 지난10월에 최고기록인 4천4백70명에 달했으며 이로써 올해 폴란드이민의총수는 2만5백명이 되었다고 6일 정부간이민위원회(ICM)가 밝혔다.

◆사우디PLO에武器공급

【예루살렘6日AP·AP=聯合】사우디아라비아는 서부레바논의 팔레스타인게릴라에게 미제군사장비를 비롯하여 수십톤의 무기를 공급하고있다고 이스라엘관영방송이 6일 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메아리
댐보다 育林을…

광대한 중국대륙의 일부가 사막처럼 변해 간다고 한다. 무리한 식량증산 정책으로 경작지를 넓히면서 임야가 황폐화 되었다. 나무를 심을줄 알아도 가꿀줄 모르고 남벌하는 탓으로 자연의 호된 재앙을 받고 있는것이다.

중공당국이 밝힌 대륙의 森林면적은 전국토의 12·7%에 해당한다. 녹화율은 크게 뒤져 세계 1백20위정도다. 그나마 국토의 13%가 森林파괴로 신음하다 사막화 되어 버렸다.

지난 여름 양자강 상류를 휩쓴 홍수가 인명·재산피해 덮으며 막대한 피해를 낸 대홍수가 오늘의 실상을 잘드러내 주었다고 하겠다. 중공은 뒤늦게 자연의 생태 균형을 유지해야겠다고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과 인간은 相扶相助의 동반관계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심은 나무는 애정어린손길이 닿는 만큼 보답해 준다.

우리 山林은 돈으로 따져 얼마만한 혜택을 주고있는 것일까…. 산림청은 유형·무형의 재화가치를 수량적으로 산출, 해마다 3조7천9백여 원어치의 보답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밝혔다.

이 「산림투자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 의하면 나무는 목재·연료등 연간 1천8백여억원의 유형재화를 제공한다. 나머지 무형의 혜택이란 산사태나 홍수방지, 저수, 산소공급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계산해 낸것이다.

한가지 예로 저수기능을 보자. 우리나라 산림이 1년간 저장하는 물은 1백67억톤이나 된다. 이만한 저수량을 지닌 댐을만들려면 5천1백여억원이 든다는 것이다. 한개의 댐을 건설하기 보다 나무를 더 많이 심자는 어느 森林연구가의 주장에 저절로 공감이 간다.

우리나라 산은 어지간히 푸르러졌지만 林木면적은 동남아 4분의1수준에 불과하다. 어제는 육림의 날. 나무를 심는 공에 비례해서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 할수 없다. 그리고 「綠化」못잖게 「有用性」에도 눈을 떠야겠다. 「가을이 되면 낙엽은 지지만 나무는 죽지 않고 봄을 기다린다」고 헤르만·헤세는 했다.

싱싱한 나무의 봄을 맞아 주기 위해선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보살펴 줘야한다.

한국、첫날 美에完敗
월드컵女子배구 身長파워에 열세 3-0

한국은 제3회 월드컵여자배구선수권대회 첫날 경기에서 美國에 1시간16분만에 3-0으로 완패했다. 7일 日本 도요아게오(上尾)시민체육관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한국은 美國의 흑인 컴비·하이만(1m96)과 크로켓(1m83)에게 강타를 허용하고 한국계세터 그린의 절묘한 토스를 바탕으로 한 컴비플레이에 속수무책이었다.

한국은 첫세트서 주장邊京子 柳貞淑 金花福 郭宣沃 李恩敬 李云任등을 스타팅멤버로 기용, 美國과맞서 초반한때 3-1까지 리드했다. 그러나 美國은 크로켓이 대포알같은 좌우강타를 터뜨리고 종종 속공도 연출, 10-5까지 리드를 잡았다.

한국은 상대강타에대한 수비위주의 작전을 폈으나 간간이 터져나오는 페인트와 연타공격에 대비치못해 계속실점하다가 7점차로 첫세트를 빼앗겼다.

2세트들어 美國은 크로켓의 왼쪽오픈공격과 블로킹, 그린의 짧은 토스에서 빚어지는 시간차공격이 계속작렬, 6-0으로 크게 리드했다.

한국은 신장과 파워의 열세를 교묘한 컴비플레이로커버해줄것을 기대했지만 전혀 손발이 맞지않았고 랠리가계속될때 포인트를 따내주는 포가 전무한 상태였다. 주니어 대표팀서 맹활약했던 李恩敬이 가끔 강타를 날렸으나 상대파워에는 훨씬 못미쳤다.

◇1차전

미국 3 (15-6 15-12 15-8) 0 한국

短篇당선작「偶像의 집」
長篇소설「客地」등 佳作3편
12회 한국文學飜譯賞수상작 결정

한국일보社와 코리아·타임스가 한국문학의 세계진출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한국문학 번역상 제12회 수상자와 수상작품이 결정됐다. 단편소설 부문에는 미국인 존·홀스타인씨가 번역한 「偶像의 집」(崔仁勳원작)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장편소설 부문에는 신현송씨(42)가 번역한 「客地」(黃晳暎원작)가 당선작없는 가작으로 뽑혔고 詩부문에선 김영진씨(26)가 「오른편」(朴木月원작)으로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결정됐다. 단편부문에서는 당선작 이외 한학준씨(42)의 「天地黑白黃」(成耆兆원작)이 가작으로 입선됐다.

단편부문 당선자인 존·홀스타인씨는 현재 延大영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78년에 金東里씨의 단편 「어떤 상봉」, 79년에 李範宣씨의 단편 「갈매기」로 당선해, 이번 수상으로 세번째 문학번역상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장편부문에서 당선작없는 가작으로 뽑힌 신현송씨는 현역 군인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영국옥스퍼드대학에서 영문학을 수학했다. 단편부문 가작입상자인 한학준씨는 광고대행업체에서, 시부문 가작 입상자인 김영진씨는 외국어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번역고료로 장편 가작 35만원, 단편당선 30만원, 단편가작 15만원, 시가작 5만원을 받게된다. 총응모작은 장편 1편, 단편 11편, 시 2편이며 심사위원은 金恩國교수(서울大)、다니엘·키스터교수(西江大)、문희경교수(高大)등 3명이다.

◇존·홀스타인

短篇當選者 존·홀스타인
原作구석구석 理解완벽
審査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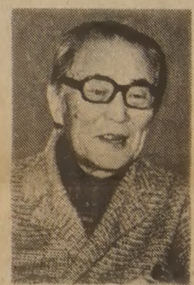
우리 심사위원들은 존·홀스타인씨의 「偶像의 집」을 한국문학번역상의 유일한 당선작으로 뽑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홀스타인씨는 우선 짜임새 있고 잘 다듬어진 원작을 골랐다는 점에서 運이 좋았다고 할 수있다. 거기에다 그는 原作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한국어와 영어 두 종류의 언어에 대한 정확한 구사력을 갖추고 있다.

「客地」를 번역한 신현송씨는 영어구사력은 좋았으나 번역자체에서 유연성이 부족했고 기계적인 딱딱한 표현이 눈에 자주 거슬렸다. 번역의 文學的인 문제들을 극복해야 할 것같다.

당선작 없는 詩부문 가작 「오른편」을 번역한 김영진씨는 詩語 선정에 미숙한점이 보였으나, 리듬감각이 있었고 原作의 톤을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돋보였다.

〈原文영문에서 요약〉 金恩國

他界한 金素雲씨 文學과삶
한국隨筆文學 새紀元 이룩
예리한 視覺·특유의 文體 구사
대표작「木槿通信」日서도 話題
우리文化·文學 日本에 소개 큰 공헌



◇2일 타계한 수필문학가 金素雲씨.

2일 他界한 元老文人 金素雲씨는 우리나라 수필문학을 이끌어 온 「타고난 文士」였다. 그는 지난해 위암수술과 담낭절제수술을 받고 病床에 누워 病과 싸우면서도 「마음의 벽」「안개가 개인는 날」등 2권을 마무리하듯 韓日두나라가 서로 쌓고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가리는 안개를 거두어 親和하기를 바라는 수필을 모아 이 두권의 책이 지난9월 日本서 출판되자 日本 독자들이 1백여명을 모아 그의 투병생활을 돕기위해 보내왔으나 그는 그돈을 도로 東京大에 보내 「韓國學연구에 써달라」고 기탁했었다.

金素雲씨는 1907년 釜山에서 출생, 20년에 渡日해서 日本詩人 北原白秋에게 師事하며 日本詩人 同人「地上樂園」에 들어가 詩作활동을 했다. 그는 日本에 소개하는데 진력해온 일생을 「朝鮮童謠集」「朝鮮詩集」「朝鮮民謠集」등을 日本에서 출간, 우리文化를 日本에 소개하는데 애썼다.

「一帝下 언론계와 日人부잣과 다투다가 「毎日申報」기자로 일하는동안 「內地」라는 用語문제로 日人부잣과 다투는등 記事관계로 자주 부딪쳐 秘話를 남겨놓았다. 해방후 52년부터 65년까지 14년간 다시 日本에서 머무르며 「코리언·라이브러리」를 발행, 日本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작업을계속했다. 51년에 「대한일보」에 연재한 장편 수필 「木槿通信」은 人生의 아름다운 부분과 사회에배어있는 虛僞意識과 僞善을 예리한 視覺으로 도려내 보인 작품으로, 우리나라 수필 문학장르에 뚜렷한 새紀元을 세우는데 공헌했다.

그의 「木槿通信」은 日譯돼 「中央公論」에 전재돼 日本 문단과 日本 독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화제가되기도 했다. 65년에 귀국한후에는 「馬耳東風帖」「三餘堂 雜筆」등의 수필집을 냈다. 그의수필은 솔직하고 꾸밈없이 당당했던 人品을 그대로 드러내는 素材로 일관했으며, 다소 冷笑的이며 간결하고 정확한 특유의 文體로 독자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주었다.

【黃桂淑 기자】

은퇴한 張勳선수 日TV에主役
武士劇「龍馬가간다」出演
1月방영 배트대신 칼들고

◇張勳선수의 두얼굴 「안타제조기」로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야구선수 張勳㊨과 東京텔리비전의 「龍馬가간다」에 출연,칼을 휘두르게 될 武士로서의 張勳㊧(몽타지).

일본 프로야구팀 롯데오리온스의 감독으로 떠오르고있는 張勳선수가 대형 TV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화제。張勳선수가 출연한 영화는 동경텔리비전이 82년1월에 방영할 司馬遼太郎作 「龍馬가 간다」。그는TV영화에서 야구방망이 대신 칼을 휘두른다。

「龍馬가 간다」는 4부작으로 막부말의 풍운아 사까모또(坂本龍馬)의 일생을 그린것。동경텔리비전은 이를 12시간에 걸쳐 방영할 예정이다。張勳선수와 함께 출연배우는 미야모또·무사시역으로 인기를 모은 萬屋錦之介, 大谷直子등이다。

張勳선수는 이영화에서 교또의 한여관에서왕족 지사들을 때려뉘는 武士 近藤勇으로 등장한다。그는 7명의 부하와 함께 야구방망이 대신 칼을 들고 한참 모의를 하고있던 왕의 측근 13명을 처치한다。이영화를 기획하고있는 동경텔리비전의 프로듀서이께다(池田清)는 近藤勇의 거친 무사기질과 張勳선수의 분위기가 딱 들어맞아 기용하게됐다고밝혔다。

그러나 張선수의 출연은 그의 오랜 친구인 萬屋錦之介의 주선으로 이뤄졌다。전에 東映영화사의 대스타였던 萬屋錦之介는 『자기가 이일을 떠맡겠다』고 자청했다。萬屋錦之介의 전화를 받은 張勳선수는 그자리에서 『꼭 출연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촬영은 오는10일부터 시작할 예정。【外紙】

올 原油도입 작년도 水準
代金은 20%증가

올들어 국내수요 감퇴추세에 따라 원유도입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원유수입에 따른 代金부담은 20.6%나 늘어나고있다.

7일 동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9월말까지 원유도입량은 1억3천4백10만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3천1백95만배럴보다 1%증가에 그치고 있으나 원유수입代金은 45억7천5백64만달러로 지난해의 37억9천4백55만달러보다 20.6%나 늘어났다.

한편 이기간중 제품의 공급량은 1억3천7백32만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3천9백20만배럴보다 1.4%가 줄어들었다. 또 제품의 수입량도 1백48만배럴로 지난해의 1천1백22만배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捜査 진전없어
금복주社長집

【大邱=聯合】금복주사장金洪植씨집 폭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발생16일째인 7일 현재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못해 수사가 장기화될것같다.

釜山市警 共助수사
금복주社長집 사건

【釜山=聯合】釜山시경은 大邱금복주사장집폭발사건 수사를 돕기위해 7일부터 공조수사에 나섰다.

시경은 이날부터 釜山시내의 폭발물판매업소와 취급업소및 폭발물취급자에대한 리스트를 작성, 금복주 사장집 폭발사건에 사용된 화약등 폭발물의 출처를 수사하고있다.

濟州 앞바다서 漁船1척 失踪

【濟州=聯合】6일 하오4시 제주도西歸浦市中文洞 성천포구에서 中文앞바다 3마일 해상으로 그물을 걷으러 나간 순성호(1·8톤선장 任仁元·41)가 귀항예정보다 16시간이 지난 7일상오 8시현재 돌아오지않고있다.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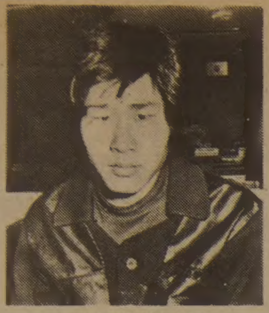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3백만원 내라" 病院폭파 脅迫

禹泰河피부과院長에 10여차례 電話·편지

시골서 上京 20代검거

지정電話박스서 돈챙긴후 潛伏경관에 잡혀


◇협박범 洪泰煥씨

서울龍山경찰서는 7일 洪泰煥씨(20·경북聞慶郡永順面末應里640)를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洪씨는 지난29일하오8시께『당신을잘 알고 있다。헛된수작을 안하는것이 좋다。당신 행동에따라 병원을 폭파하겠다』는내용의 협박편지를 서울龍山區葛月洞15의3 禹泰河피부비뇨기과원장 禹씨에게 보낸뒤 6일까지 10여차례나 전화를 걸어 현금3백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집과병원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했다。

洪씨는 지난 1일 하오 6시30분께 간호원 權英順양(22)이 받은 협박전화에서『편지받았겠지、헛소리하면 너도 죽인다』고 협박까지했는데 6일 하오7시5분께 禹씨에게『3백만원을 하오8시까지 厚岩洞 버스종점옆첫번째 공중전화박스에 갖다놓으라』고 지시、禹씨의 부인 安惠聖씨(58)가 돈을 갖다놓자 이를 챙겨 근처 뒤김집으로 들어갔다가 잠복한 형사대와 격투끝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洪씨는 禹씨가 저명한 의사인데다 평소 禹씨의 병원에 손님이 많은것을 보고 3백만원쯤은 쉽게 내놓으리라고 생각、禹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洪씨는 고향에서 N상고를 졸업、형과 경리학원일을 보다가 지난2월 서울에와 서울龍山區龍山洞2街 누나집에서지내면서 일자리를 구하다 취직이안되자 주산3단의 실력으로 경리학원을 차릴돈을 마련키위해 범행을계획했다는것이다。

家政婦、主人딸업고증발

"劇場갔다온다" 금팔지등 佩物도 갖고

6일낮 12시께 서울九老區加里峰2洞81의9 구룡여인숙(주인 이종치·37)에서 가정부 李은주양(22)이 주인진안방 장롱속에넣어둔 패물70여만원어치를 훔치고 생후 11개월된 주인 이씨의 막내딸 민선양을 데리고 집을 나가 하루가되도록 돌아오지않아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李씨에 의하면 이날낮달아난 李양이 딸을업고『극장에 갔다오겠다』고말해 3천원을 주어보냈는데 3시간이지나도록 돌아오지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어장롱을 열어보니 서랍속에넣어둔 6돈쭝짜리 금팔찌한개、5돈쭝짜리 금목걸이등 70만5천원상당의 패물이없어진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것。

달아난李양은 고향이 충남錦山으로 지난5월말 애인柳모씨(25)와함께 이 여인숙에 5일동안 투숙했다가 간적이있었는데 지난1일 다시 찾아와 숙박을하면서 가정부로 일하기를원해 그동안 구룡여인숙에서 일해왔다는것。

경찰은 錦山으로 형사대를 보내는한편 이양의 행적을찾고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한국일보
533·2361

밤거리 女人들「人間선언」

새삶 위해 再起 몸부림

주인 橫暴앞에 團結

龍山驛앞淪落女 개나리會·梨泰院에 장미회

病席의동료 도우며 相扶相助 / 1人1通帳가져 自立의터전 / 매달會議… 환각제 안피운다

「개나리회」「장미회」。무슨 아파트단지부인들의 한가로운 모임의 이름이 아니다。서울에서 소문난 적선지대에 살고있는 밤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포주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조직한 결반한 모임이다。말하자면 윤락녀들의「인간선언」을 실천해보자는 곳이기도하다。지난6월 조직된 이 두모임은 같은목표아래 같은성격의 활동을 하고있는데 이 밤거리의 꽃들이 내국인을 상대하느냐 외국인을 상대하느냐에따라 소속이 다를뿐이다。개나리회는 龍山驛부근에서 일하는 내국인상대、1백57명이 회원으로 돼있고、장미회는 그보다 조금 떨어진 梨泰院洞일대의 미군상대 3백여명이 회원이다。처음 모임이 출발할때는 龍山보건소(소장 朱熙蘭·33)의 주선에 의한것이 었으나 이제는 외부의 도움없이도 잘 운영돼 가고있다。

이 모임의 목표는 좀 길고 엄청하게 들린다。『이 부끄러운 직업을 우리에게서 끝나도록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은 그동안 매월 1번씩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토의、실천해왔다。

지금까지 결의한 내용을간추리면▲포주의 부당한 착취를 근절하고▲환각제를 스스로 복용하지 않으며▲1인1통장제를 실시、자립의 기틀을 닦고▲새로운 윤락녀지망생을 발견하면 이를 적극 설득、집으로 돌려보낸다는것등이다。

이런 결의들은 이제막 행동에 옮겨지고 있는단계지만 회원들은 자신들의목표가 성공될것을 확신하고 있다。벌써부터 적잖은 효과가 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회원들은 오랜세월 그들을 가장 괴롭혀온 포주와 기둥서방 펨프등 중간착취자들에 게 어느정도 대항할수있는「무기」를 마련했으며 귀향을 원하는 회원 6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의 귀향비도지급했으며 윤락녀지망생 10여명을 설득、귀가시키는 보람을 맛보았다。

이곳 윤락녀들은 얼마전까지만해도 포주와 펨프등에게 하루수입중 절반이상을 뜯기고 그밖에 매월 방값、전기요금、수도요금、오물수거비등의 명목으로 많은 돈을 또 빼앗겨왔다。포주에게 돈을 제때에 내지못하면 고스란히 빚이되고 액수가 늘어나면서 영원히 윤락가를 벗어날수없게 돼 있었다。

회원들은 우선 포주에게돈을 주지않기로 했다。높은이자의 포주돈을쓰는대신 1인당 매월1천원씩의 회비를적립、몸이 아프거나 일을할수없을때 이돈을 이용할수있게 했다。

모임이 없을때는 포주에게 폭행을 당해도 누구하나 항의조차못했으나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다。모임이름으로 단체항의하고 사과를 받는것은 물론 점잖게 타이르는수준에 이르렀다。

환각제 역시 몸과정신을함께 망쳐온 고질이었다。그러나 스스로 환각제복용중단을 결의한이후 대표들이 동네약국을 찾아가 윤락녀들이 즐겨찾는 아티반、아나렉스、세코날등을 회원들에게는 팔지 말라고 당부했다。

개나리회회장 윤정아씨(32·가명)는『전에는 아프거나집에 일이 생겼을때는 포주들로부터 높은이자로 돈을 빌어 빚이 묶이곤했는데 지금은스스로 해결할수있게돼 많은회원들이 좋아하고 있다』면서 밝게웃었다。

또 장미회회원 이명자양(25·가명)은『얼마전까지만해도 윤락녀끼리 시기하고 모함하는등 싸움이 그치지않았는데 이제는 서로 돕고 충고하는등 분위기가 싹바뀌었다』면서『우리도 뭔가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양에 의하면 전에는 귀향하려는 동료가있으면 각가지 모함으로 길을 막았는데 이제는 여비를 보태주가며 앞날을 축복해주고있다는것。

이 두모임이 출발하고 이렇듯 성공할수있었던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龍山보건소장 朱씨의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했던것。

지난해까지 議政府市 보건소장으로있던 朱씨는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윤락녀들의 자치조직을 만들려했으나 포주들로부터는『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관내기관장으로부터는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고난을겪으면서 6월17일에 장미회를 조직했고、한달뒤에 개나리회를 조직했으나 포주들의 방해는 아직까지 계속돼 장미회의경우 이들의 방해로 미가입자가 가입한 사람보다 많은 5백여명이나되고있고 개나리회의 경우도 1백50여명이 미가입상태라는것。

그러나 괴물처럼 비대해진 서울한복판에서 조직된 이두 윤락녀들의 모임은 朱씨와같은 휴머니스트와 윤락녀스스로의 의욕이 합쳐 주위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가고있다。그것은 조그만 시도이지만 악순환을 거듭해온 우리 윤락녀대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는것이라고 해도 좋다。【鄭崇鎬기자】

무단橫斷 남녀 버스치여 숨져

6일하오7시께 서울永登浦區 永登浦洞1가94 서울대교 永登浦쪽 진입로에서 무단횡단하던 李炳台씨(35·서울冠岳區大方洞346의15)와 24세가량의 여자 1명이 강남여객소속 경기5아5359호 시외버스(운전사 成萬根·29)에 치여 李씨는 중상을입고 여자는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永登浦역에서 서울역쪽으로 가던 사고버스가 길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李씨등을 피하지못해 일어났다。

「輪禍증인」처녀 12일째 行方불명

서울永登浦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 현장검증에 나가던 시골처녀가 12일째 행방불명되자 수사에 나섰다。

서울城北區貞陵3洞894의3 金順善씨(34)는 처제 崔京順양(20·경기楊坪郡龍門面新店里)이 뺑소니차에 치여 숨진 큰 아들 光勳군(4)의 현장목격자로 증언하기위해 지난달26일 상경、永登浦區楊坪洞에서 실종된지 7일현재 소식이 없자 경찰에 신고해 왔다。

金씨에 따르면 지난2월1일 하오8시쯤 서울城北區貞陵3洞 집앞에서 놀던 큰아들 光勳군이 트럭에 치여 숨졌는데 같은 동네에서 전자제품회사를 경영하는 徐石榮씨(35)가 범인으로 구속되었고 10월15일 1회공판때변호인측의 요청으로 崔양등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崔양은 현장검증당일인 10월26일 자신이 취업하고 있는「삼부복장」의 승용차편으로 상오10시쯤 龍仁을 떠나 永登浦區楊坪洞4가 삼부복장본사앞까지 와서 시내버스를 타고 貞陵으로 간다며 내린뒤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다。

江南못간 제비 立冬추위에「民泊」

◇서울西大門區 北加佐1洞145의145尹東鉉씨(39·상인) 집 처마밑에서 살던 제비새끼 1마리가 강남행 이동의대열에서 처진후 立冬추위를 견디지못해 주인집안방으로 날아들어 겨울을나고있다。이 제비새끼의 어미·형제등10마리는 지난10월중순강남으로 떠나버렸는데 주인尹씨는 내년봄에 이離散제비가족의 再會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세少女 아파트서 投身…숨져

生活苦…"契主학교오면 어떻게…"

"나는 떨어져죽음"·電話번호등 메모남겨

6일 상오11시30분께 서울江南區逸院洞 韓信7차아파트303동 뒤편 7층비상계단에서 柳政宰씨(38·무직·서울冠岳區奉天1洞711의11)의 장녀 承希양(11·龍山국교5년)이 20여m아래 화단으로 투신、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7일 상오9시30분 숨졌다。

경비원들에 의하면 맞은편 302동의 한주민이 인터폰으로『어린이가 비상계단에 올라가있다。위험해 보인다』고 알려와 경비원 李京珍씨(49)등 3명이 내려오라고 소리쳤으나 이들중 1명이계단에 오르는 순간 투신했다는데 李씨는 떨어지는 承希양을 받아 안으려다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

承希양은 6층과 7층의계단턱에 동전으로 집전화번호와함께『나는 떨어져죽음、금방떨어짐 숨회』라고써 놓았다。가족들에의하면承希양은 4일전 삼촌 柳鍾奈씨(35·서울龍山區漢江路2街174의1)집에서 돈1만원을 훔쳤다가 들켜 심하게 꾸중을 들은일도있는데 어머니 李三連씨(37)가 지난해 1천만원짜리계에 들었다가 곗돈1백40만원을 내지못해 계주로부터 시달림을받자 계주가 학교로 찾아올것을 두려워하기도 했다는것。

경찰은 承希양의 부모가 사이가나쁘고 생활고까지 겹쳤던점을들어 承希양이 염세자살을 기도했던것으로 보고있다。

國有林서 骨材채취·不法알고 默認

太白市 과장·業者 둘拘束

【江陵=聯合】春川지검江陵지청 金容學검사는 7일 太白시건설과장 鄭然吉씨(51·江陵市洪濟洞10통4반)를 직무유기혐의로、三扶골재 대표 崔相吉씨(34·三陟邑南陽3里8통3반)와 현장감독 洪性烈씨(35·三陟邑南陽2里12반)등 2명을 하천법위반등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6월30일 三陟郡 건설과장으로 있을때 三扶골재에대해 三陟郡乾芝里169 五十川일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준후 三扶골재가 허가내용을 위반、7억2천만원 상당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준 혐의이고 崔씨와 洪씨는 지난79년1월부터 지난9월까지 2년9개월동안 관계당국의 허가도없이 9만3천평에 이르는五十川일대에서 자갈등 24만1천㎥의 골재를 불법채취해왔고 지난해11월부터 12월사이에도 三陟邑馬

日勤業銀 여卓球팀 親善경기위해 來韓

日本第一勸業銀 여자탁구팀 12명(임원4·선수8)이 KAL편 내한했다。

第一勸業銀팀은 奬忠체육관에서 外換銀·第一毛織과 각각 한차례씩 야간경기로 韓日친선경기를 가지며 東亞建設·韓一銀·釜山코카콜라와 비공식친선경기를 벌인다。

太平洋전쟁때 사이판의 포로였던 두韓國여인 美國人이 애타게찾아

本社에 부탁편지

◇가발던씨가 한국인 포로에게 식사를 대접할때 찍은사진。앞줄머리에 흰테를두른 여자가 金在銀씨㊧와 安福心씨(원내는 가이·가발던)。

표주박

○…태평양 전쟁때 사이판에 첫상륙한 미해병으로「사이판의 영웅」이된 미국인 가이·가발던씨(52·사이판거주)가 당시 한국인 포로였던 두 여자를 찾아달라고 본사에 부탁해왔다。가발던씨가 찾는 두사람은 일본군 위문쇼단으로 일하다 미군상륙과 함께 포로가됐던 金在銀씨와 安福心씨로 당시 18세정도였다는 것。

○…1944년 미군이 사이판을 점령하자 金씨등은 다른 일본인 8백명과함께 마퍼포인트동굴로 숨었다。이때처음 상륙한 가발던씨가 동굴입구에서 일본말로『모두 나오라』고 외치자 이들두여자가『우리는 한국인이다。살려달라』며 동굴을나와 이를계기로 8백명이 다치지않고 포로가됐다는것。

○…당시 가발던씨는 金씨를 비롯한 한국인10여명을초청、음식을 대접하며 특별히 호의를 베풀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에 별로없고 두여자가 사진에 이름을 남겨 기억할수 있다는것。

○…가발던씨는 종전후 반공투사로 쿠바、니카라과에서 용병을 이끌고 맹활약、한때 카스트로가『가이를 잡아 하노바 광장에서 목매죽이라』고 부하에 호통까지 친 일이 있다는 역전의 용사。

○…가발던씨는 10일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자신이 찾고있는 두 사람이나 그 친지들이 서울道峰區月溪洞278의3(전화⑨4219)으로 연락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왜 여자들이 낄낄대는 소리가 들리죠?" "내사무실안에 여자라곤 없는데"

"여보게들… 좀 도와줘야겠어"

"여자는 한명도 없는데요, 블론 디 여사" "없는데요" "없어요" "남편말이 옳아요"

"아직도 마누라는 믿지않는다구"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비데오 테프세일"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Better
Video Cassette Recorders

PV-3200K Omnivision VHS
2-4-6 Hour Home/Portable Video Cassette Recorder with 24-Hour Tuner/Timer and Add-on Recording

VTC9100 Video Cassette Recorder
Sanyo makes video recording or playback easy and inexpensive. Built in TV tuner lets you watch one program while recording another or allows unattended recording up to 24 hours in advance. Remote Pause Control for instant editing • Lighted Channel indicators • Easy TV hook-up • One touch Recording or Playback • Up to 3 hours Recording or Playback* • Memory Rewind • Automatic Shut Off.
*Note: L-830 tape not recommended for use with VTC9100

PK-700AK
Compact Color Video Sound Camera with Electronic Viewfinder and 6 : 1 Motorized 1-Speed Zoom Lens
• Extendible Boom Mike
• 3 Position Color Temp. Switch.
• ± Iris Control
• Stand By Switch.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 WESTON / HWY 400 / HWY 401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M1E 3E6
282-2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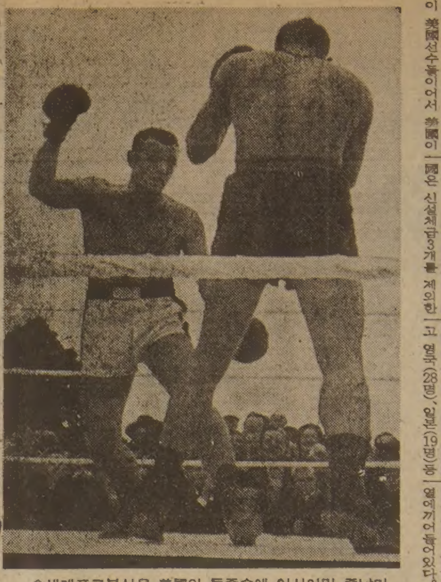
프로복싱 90년 歷代챔피언 4백86명

美링誌 집계 美2백41명으뜸 멕시코 30명

한국도 9명을 배출

『프로복싱 세계밴텀급 차기챔피언은 멕시코에서 찾아라』 국가별 역대 세계챔피언 총숫자를 정리하다보면 이같은 결론이 내려질만하다. 최근 발간된 美國의 복싱전문잡지 링誌는 1891년부터 1980년까지 90년간 국가별, 체급별 배출챔피언수효를 총정리, 그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지금까지 배출된 세계밴텀급챔피언총수효는 모두 59명으로 이중美國이 22명, 멕시코는 10명으로 집계돼있다. 그러나 경량급에 있어서 美國의 강세는 20세기 전반에 한한것이며 60년대이후엔 멕시코선수들이 대부분 밴텀급을 지배해왔다.

세계 프로복싱 90년史를 통해 탄생된 각체급챔피언 총수는 모두 4백86명. 이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백41명이 美國선수들이어서 美國이 세계복싱계에서 누리는 절대적인영향력을 실감케해준다. 또한 주니어플라이급에서 헤비급에 이르는 15체급중 美國은 신설체급3개를 제외한 12체급에서 현격한 차이로 1위를 고수하고있다. 美國 다음으로 멕시코가 30명을 배출, 2위에 올라있고 영국(28명), 일본(19명)등이 그뒤를 따르고있다. 최근 들어 기세를 올리는중인 한국도 모두 9명을 배출, 캐나다와 동률9위로 강호의 대열에끼어들어있다.



◇세계프로복싱은 美國의 독주속에 아시아및 중남미세력이 점차대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사진은 가장 마지막 非미국인 헤비급챔피언이었던 잉게마르·요한슨(스웨덴)의 대전모습。

세계챔피언들의 지역별분포는 어떤가. 이에서 美國을 포함하고있는 북미대륙이 백9명을 배출해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압도적 강세를 보이고있다. 그다음이 90명의 유럽, 44명의 아시아. 최근호조를 보이고있는 남미세력은 23명에 불과한데 이는 도입이 늦었을뿐아니라 복싱국가수효가 4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20개가넘는 국가가 산재, 90명의 챔피언을 탄생시킨 유럽과의 대조를 보인다. 연도별추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한때 美國에 의해 배출되온 플라이급이 60년대 이후엔 거의 아시아지역의 전유물처럼 변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지역 최초의 세계챔피언은 52년 日本의 시라이·요시오가 플라이급왕좌에 오르면서 비롯됐는데 그뒤 탄생된 23명의 챔피언중 16명이 한국, 일본, 필리핀등 아시아지역출신이었다.

챔피언중의 챔피언으로 불리는 헤비급은 완전한 美國의 독무대. 총32명중 美國출신이 아닌선수로는 보브·피치몬즈(영국), 토미·번스(캐나다) 맥스·슈멜링(서독) 프리모·카르네라(이탈리아)정도였으며 50년대말 잉게마르·요한슨(스웨덴)이후론 명맥이 끊어진 상태다.

한편 아마추어복싱의 최대결전장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분포에서도 美國은 총1백33명중 33명을 배출, 수위를 달리고있다. 그다음이 소련과 英國의 12명으로 동률2위, 그뒤에는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등이 따르고있다. 【烈】

◇국가별 역대세계챔피언 총수 (1891~1980)

▲주니어·플라이 (10) ①일본 멕시코 파나마 各2
▲플라이 (49) ①영국 8 ②일본 6 ③미국 5
▲주니어·밴텀 (1) ①베네수엘라 1
▲밴텀 (59) ①미국22②멕시코10③영국 4
▲주니어·페더 (10) ①미국 3 ②한국 2 ③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各1
▲페더 (59) ①미국26②멕시코 6 ③파나마 3
▲주니어·라이트 (23) ①미국 7②일본 4 ③필리핀 3
▲라이트 (42) ①미국25②멕시코 4 ③푸에르토리코 스코틀랜드 各2
▲주니어·웰터 (26) ①미국10 ②이탈리아 3 ③필리핀 스페인 各2
▲웰터 (58) ①미국37②쿠바 영국 各4
▲주니어·미들 (20) ①미국 4 ②이탈리아3③한국 일본 브라질 各2
▲미들 (53) ①미국34②영국4③아르헨티나 이탈리아 各2
▲라이트·헤비 (42) ①미국24②영국3③아르헨티나 아일랜드 各2
▲크루저 (2) ①미국 푸에르토리코 各1
▲헤비 (32) ①미국27②캐나다 영국 서독 이탈리아 스웨덴 各1
◆총계 (486) ①미국225 ②멕시코30③영국28④일본19⑤이탈리아18⑥파나마14⑦푸에르토리코12⑧필리핀10⑨한국 캐나다 各9

82년도 아시아青少年축구 東部예선전 서울誘致키로

축구協 인준요청

대한축구협회는 82년도 제23회 아시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동부지역예선전을 서울에 유치키로결정, 5일 대한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아시아 청소년대회는 지난해 22회 대회부터 東西지역으로나누어 예선을벌인후 두지역의 1、2위팀이 결선을벌이며 이대회의 우승、준우승팀이 세계대회에 나가게된다.

5번째 南·北對決

킹스컵서 忠武팀、北韓과함께 예선B組에

泰國킹스컵대회서 축구남북대결이 이루어진다. 9일 방콕서 개막되는 제14회 킹스컵축구대회에 출전하는忠義팀은 북한·印度·濠洲·폴란드·泰國B팀과 함께 예선 B조에 편성되어 14일하오7시(한국시간) 북한과 대결하게되었다.

킹스컵대회에 출전하는북한팀이 단일팀인지 대표팀인지 확실하지않으며 확실히이 대회에 참가할지도 분명치않다. 과거여러차례 북한은 참가신청을한뒤 뚜렷한 이유없이 대회에불참했었다.

축구 남북대결은 지난 76년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방콕)준준결승때 처음 이루어져 한국은 경기주심의부당한판정으로 1-0로 분패했으나 78년 방콕에서 열린 청소년대회 준결승서 승부킥 6-5로 승리했다. 이어 78년 방콕아시안게임결승서 남북대표팀이대결, 연장격전끝에 0-0으로비겼으며 지난해 9월 아시아선수권대회(쿠웨이트)준결승전서 한국은 丁海遵의 2골에힘입어 2-1로 극적인 역전승을거두었다.

한국은 북한과의 4차례(청소년대회 포함) 대결서 2승1무1패의 우위를기록했다.

지난해 킹스컵대회서 泰國과 공동우승을차지해던 忠義팀에는 趙廣來 朴成華 吳錫載등 대표급선수들을 보유한 막강한전력을 갖추고있어 선전이 기대된다.

KBS·TV는 한국팀의 대전을 현지로부터 우주중계할 예정.

◇忠義팀경기일정(한국시간) ▲10일=對泰國B(하오8시35분)▲12일=對폴란드(하오7시)▲14일=對북한(하오7시)▲17일=對印度(하오7시)▲18일=對濠洲(하오7시)▲20일=준결승1차전▲22일=준결승2차전▲24일=3、4위전및결승전

사파타 防禦戰성공 보라싱에 TKO勝

【코라트(타이)6日聯合】 프로복싱 WBC(세계권투평의회)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인 파나마의 일라리오·사파타는 6일 泰國의 도전자 네틀노이·보라싱을 10회 TKO로 물리치고 9차방어전에 성공했다.

한국일보 詩壇

哀詩

李廷基

마지막 나눈 대화는
「마음을 비워 없애는 일과 이승의 관계」
였읍니다.
그리고 東쪽으로 다가서시면서
「이대로면 어쩜 회복될 것 같기도 하
고…」
혼자 중얼거렸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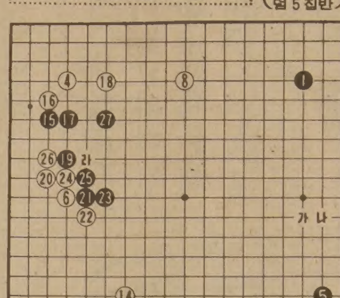
삶은
마른 풀잎에 스쳐가는
바람소리같은 것.
저녁 놀은 타는데
바람소린 어디로 가고 있읍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소리,
어둠을 기다리는
나머지 풀대공들은 처량하고,
휘엉 휘엉 님의 모습
허공으로 달처럼 가시는데
저녁 풀벌레 울음에다
눈물의 글 한 句 방축해 올립니다.

제13·71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2譜 1~27 (각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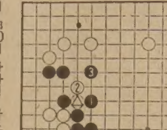
白(6段) 姜哲民〈2敗〉
黑(5段) 張秀英〈2勝〉



黑1에서 3의 小目이면 다음 黑「가」혹은「나」의 中共式포석이 예상되었고 白2、4면 으례 6자리의 3連星으로 나올것이 뻔해 보였다。觀戰子의 이예상은 그러나 하나바에 맞지 않았다。白6까지의 3連星은 예상한대로였지만 黑은 5로 전실하게 우하귀를 굳힌것이다。하기야 中共式은 이미 유행이 지나서 요즘은 다시금 黑3、5와같은 옛날포석으로 환원되고 있는 실정이다。黑7에 대한 白8의 응수도 서답이 또 姜6단의 棋風인가하면 좌하귀 黑13은 보통이면「다」자리를 짝 잇는것이 모양인데 여기서 張5단의 취향을 볼수있다。

白14까지 포석의 뼈대가 갖춰지자 張5단은 최초의장고 15분。白의 3連星세력을 어떻게 깨느냐가 연구의 초점이다。따라서 黑15이하의 기본형으로 19까지、자리를 잡은것은 당연한데 이때 白20이 하나의 급소인 만큼 몹시 날카로왔다。張5단은 신중한 수습을 취하여 黑21이하 27。미흔바 正形이라는것으로 黑軍을 정비한다。

敵勢파괴의 본보기



수순중 白26으로「라」자리를 중는 참고도의 △표는 당장 黑1、3에 씨워조이는 수를 당하여 전문가가 말하는「망한꼴」이 되어버린다。따라서 실전처럼 白26이 옳고 黑도 27이「모양」이라고한다。여기까지 올바르게 판을 짜가고 있었는데…。【一凡】

蘇TV는 쇼까지 共産教育

모든프로그램 中央서 통제

外大학보 「蘇TV放送의 現實」서

소련의 TV는 공산조직을 강화하는 선동·선전자역할을 하고있으며 모든 프로그램도 당노선에 적합한것으로 중앙에서 통제, 결정한다. 外大학보는 이같은 「소련 TV방송의 현실」(이광재교수)을 싣고 공산국가에서의 TV언론을 비판했다. 이에따르면 소련의 TV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된것은 불과 10년정도. 방송국은 60년 1백여개에서 2백50개 정도(69년)로 증가했고 TV수상기는 75년 5천5백만대로 늘었으나 이중 컬러TV는 1백50만대정도에 불과하다. 방송내용은 모스크바에 있는 4개TV채널중 1TV는 컬러, 2TV 지방뉴스, 3TV가 교육, 4TV는 영화쇼등 오락프로를 방송하고 있으나 쇼까지도 공산당노선에 적확한 교육적인 것으로 채우고 있다. 시청시간에 있어서 남자가주10~12시간으로 여자보다많다. 소련의 지방주민들은 TV로 인해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실감, 생활에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사회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적 집단생활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마르크스정신이 점차 엷어져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모눈종이 위의 生 ⑮

趙善作 金光培畵 <248>

내가 군자네 집을 찾았을 때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을 무렵이었다. 그런 생각이란 내 자신을 스스로가 이승에서 말살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따금씩 나는 매우 분격해서 부릅뜬 눈으로 그것을 마주 보며 서 있고는 했다.

세계의 침묵. 그것은 내가 J씨와 U씨를 만나보고 나서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들에게 뭔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정말 아니었고, 그들을 찾아본 것은 다만 우회적(迂廻的)인 방법으로 나마 한민일씨의 근황을 엿보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결코 침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완강한 증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뒤섞고, 부딪치고, 뛰고, 달리곤 하던 지난 일년 동안은 세계가 마치 나를 중심으로 함성을울리며 소란스럽게 내닫는 듯싶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언제 그랬느냐 싶게 죽은듯 고요한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함성, 세계의 소란은 처음부터 거짓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한 마리의 미꾸리가 일구고 다닌 흙탕물, 시간이 지나면 다시잠잠하게 가라앉아 버린 흙탕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 분격한 자멸(自滅)의 충동이 근원(根源)하는 곳은 바로 그런 데였다.

더 정직해지자. J시인과 U감독, 그들과 자버린 일만 아니었다면 그처럼 분격해서 스스로를 죽이려들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말살(抹殺)>따위 거친 단어를 머리에 떠올려 가며 스스로를 저주한 것은 바로 간이역에서 돌아온 뒤부터인것이다.

그러나 분격과 저주만으로 스스로를 살해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이 비이성적(非理性的)인 충동에 불과하다는것을 알고 있었으며, 충동만으로 목숨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할 수가 없었다. 죽음에는 보다 더 그럴듯한 이성적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찾기위해 나는 또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군자를 찾아가기로한 것은 그녀가 한민일씨의 부인과 수퍼마킷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는, 그리고 금방 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들었기 때문인데 나는 바로 그것을 겨냥한 것이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괜히 너한테 눈치보이는것 같아 선뜻 친해지기도 그렇고 이상하더란』하고 덧붙였었다.『너 혹시 그렇게 내 이야기도 한거니?』하고 내가 넌지시 물었고, 그녀는 펄쩍뛰며『내가 미쳤니? 내가 왜 그런애길 하니?』하고 말하기도 했었다.

내가 찾아갔을때 군자네 집에는 아직 미혼인 군자의 여동생이 다니러와 있었다. 대학을 나온지 이태쯤 되는 균형잡힌 몸매의 아가씨였는데 흠이라면 사춘기때부터 얼굴에 뒤덮이기 시작한 악성 여드름이 아름다움을 빼앗아가 버린, 좀 엉뚱하게 불우해진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였다. 그녀는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기 싫어했고, 그것은 내게도 마찬가지였다.

문을열어준 그녀에게 『혼자와 와 있었구나』하고 내가 아는체하자 그녀는 겨우 나를 알아보고 『어머, 언니…』하고 놀라보인 다음 얼굴을 가리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용도실쪽에서 물 묻은 손을 닦으며 군자가 나오자 내가 말했다.

『진작 인사를 왔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무슨?』

『엄마 돌아가셨을때 너무 많이 폐를 끼쳤잖니?』

『얘는…。그럼 넌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그렇게도 안 할거니?』

流星의 賊 <229>

李炳注作 李友範畵

秋風何處至 ㉗

11월12일. 드디어 정언신, 정언지, 홍종록, 정창연, 이발, 이길, 백유양등을 친국했다. 이것은 정여립의 조카 정집(鄭緝)의 공초(供草)에서 나온 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정집은 국청에서 『정언신등이 역모에 같이 참여하여 장차 대응하려 했다』 고 공술한 바 있었다.

이욱고 정언신은 중도부처(中途付處)의 처분, 즉 일정한 곳을 정해 딴 곳으론 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을 받고, 언지는 강계(江界)로, 종록은 귀성(龜城)으로, 이발은 종성(鍾城)으로, 이길은 부령(富寧)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그 가운데 이발과 이길은 다음다음으로 죄상이 드러나 다시 국청으로 소환되어 결국 곤장 아래에서 죽고 말았다. 이 기축옥사를 동인(東人)들이 적은 이른바 「동인기축록(東人己丑錄)」은 이발에 관한 기사를 애석하게 적고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발의 아우 이길이 8월 그믐께 처자를 데리고 서울로 오는 도중 금구를 거칠 때 여립을 종전원에서 만났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여립이 소반에 술을 찍어 손가락으로 글 몇자를 썼다. 이길은 그것을 보자 대경실색했다. 그것이 반역을 뜻하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이길은 말없이 그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서울로 향했다. 금구 수탓재(車峴)에 이르니 여립이 보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이길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이길의 동행에 무사 임순(林恂)과 그조카 임지(林趾)와 임준(林埈)이 있었기 때문에 탈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이길은 고향에 있는 형에게 알려 곧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선 여립의 역모를 고변할 일을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조구의 고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그땐 이미 시기가 늦었던것이다.

이것은 물론 동인들이 이발을 변명하기 위해 지은것이라고 할 수있는데 아뭏든 이발은 비극적인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다음과 같은 기록도 남아있다.

이발이 종성으로 귀양가는 도중 안인참을 만나는데 『계함(정철)을 만나거든, 계함은 나의 잘못을 여러차례 덮어주었는데 나는 계함을 저버림이 많았으니 내가 장차 저승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대하리까 하더라고 전해달라』 며 대성통곡 했다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니 『역적의 협박으로 부득이한 것』이라며 극형을 할 작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날이 가며 따라 분노와 미움이 심해진 모양이다.

『동인기축록』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이발의 어머니 윤씨는 나이 82세였고 아들은 8세였는데 모두 엄형을 받고 죽었다. 이발의 모친이 죽을 때 분연히 말하길 『형벌이 너무 과람하다』고 했고, 발의 아들은『평일에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길, 집에 들어선 효도하고 나가서는 충성하라고 하였을뿐 역적의 일은 들은적이 없읍니다』하였더니 임금은 『이런말이 어찌 그놈의 자식입에서 나올 말이냐』며 때려 죽이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급(李汲)과 이발의 아들은 큰아이가 11세이고, 작은아이가 5세였는데도 모두 맞아 죽었다. 유사사화에도 이런일은 없었으니 옥졸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자가 없었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66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8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7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8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인상범	주일 낮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배 주일오후 [illegible]	2501 Warden Ave.	298-9031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서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충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56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